

5 0 +
리포트
2021

2021년 03호 Volume 27

03

Issue

포스트 코로나,
50+세대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며

이슈 PICK 96	학습 관계망이 중요한 50+세대 이희수
이슈 PICK 99	서울시 50+ 1인가구와 주거 취약 문제와 대안 송인주
이슈 PICK 10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50+세대의 여가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윤소영
50+정책연구 107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년의 재취업과 경력전환 지원 홍성표
인포그래픽 111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포스트 코로나 50+세대 라이프스타일 변화 연구 송민혜
글로벌 50+ 114	미국의 노인 정책: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Aging in Place) 박민경
글로벌 50+ 120	'캐나다 카운슬링 교육 및 연구기관 (CERIC)'의 '전문가용 경력개발 프로그램' 소개 표성일

학습 관계망이 중요한 50+세대

서울시 50+세대를 위한 통합지원정책을 펴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1960년생으로 서울시 용산구에서 살아가는 나에게도 일반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로 다가온다. 재단의 설명대로 50+세대는 만 50~64세, 베이비부머, 신중년 등과 같이 다양하게 일컫는 중장년층을 말한다. 나는 시골 농부의 9남매 중 여섯째이니 베이비붐 세대이다. 79학번 대학동기들도 대부분 은퇴를 해서 '동기사랑 카톡방'이 불난다.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일자리나 일거리를 희망하는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의 신중년이기도 하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나를 포함한 중장년 세대에게 청년과 노년을 연결하는 다리로서뿐만 아니라 교육, 일, 커뮤니티, 정보 플러스라는 패키지 형태로 50 이후의 삶을 준비해 주는 토대로서의 재단(Foundation)이다. 토대가 있어야 연결의 관계는 가능하다.

나의 세대가 즐기는 서부영화 <집행자 루스터(Rooster Cogburn)>에서 올라 역을 하는 캐서린 헵번이 루스터 폭번 보안관에게 위로 차 건네는 대사가 생각난다. "Life is school", "인생이 학교죠"라는 헵번의 말은 몇 해 전 유행한 영국발 '인생학교'를 떠올리게 한다. 진보주의 교육철학의 거장 존 듀이를 소환하지 않더라도 우리네 '삶이 교육이고, 인생이 학교다'. 교육자 코메니우스의 말대로 '우리 각자는 나 외의 모든 사람을 위한 학교로 존재한다'. 중장년 각자는 유일무이한 인생학교이다. 각자의 인생학교가 서울시50플러스 재단을 플랫폼으로 하여 연결될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년 인생학교가 완성된다.

50 이후의 중장년 인생학교는 「탈학교 사회」의 거장 일리치의 학습 관계망(Learning Web)으로 이루어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학습 관계망 구축의 비밀은 오래전 일리치 선생께서 알려준 학습 거미줄을 치는 데 있다. 연결의 시대에 중장년의 학습 모델은 개미가 아니라 거미이다. 중장년은 'Learning Spiderman'이어야 한다.

나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이다. 글을 쓰고 있는 8월 18일 연합뉴스에는 "신규확진 1천805명, 연휴 끝 다시 급증...거리두기 조정 앞 중대고비(중합)"라는 기사가 뜬다. 천 단위에서 십 단위로 내려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정치질서를, 예수의 탄생은 종교질서를 바꾸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질서를 바꾸었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광화문글판'에 걸린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어느 당대표의 연설을 통하여 "소소한 일상이 엄청난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코로나는 전쟁과 메시아도 바꾸지 못한 우리의 '일상'을 바꾸었다. 일상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이다. 나 한 사람의 일상의 변화에서 50+ 중장년 일상의 변화를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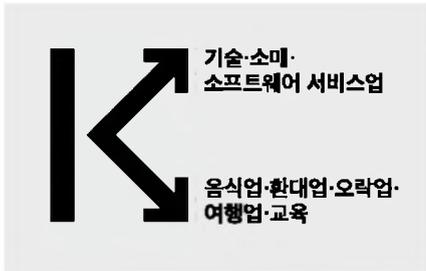


학교 중심에서 집 중심 생활로 전환한 지도 거의 1년 반이 넘어간다. 코로나 이후 나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다. 집이 학교고, 연구실이고, 식당이고, 체육관이고, 교회이다. 집사람도 50대 중반에 명퇴를 하여 집에 있다 보니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일터 중심 '과업'형 인생에서 가정 중심 '관계'형 인생으로 전환하라고 나에게 명령하는데, 나의 몸이 따라 주지 않는다. 30여 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게 익숙하지 않다. 집사람은 동네에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제법 있는데 나는 없다.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한혜경, 2015) 중 세 가지가 나의 후회이자 '버킷리스트'이다. 즉 "아내와 함께 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여자들처럼 사는 법을 배웠더라면, 평생 친구 세 명쯤 만들어 뒀더라면"이다. 집에만 있으면 가끔 두 사람 간의 긴장이 갈등으로 번질까 봐 나는 한강변을 무작정 달린다. 과업형에서 관계형으로의 전환, 일에서든 학습에서든 쉽지 않다. 중장년의 공통된 고민이다.

학습 관계망도 마찬가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는 시대를 초월하여 회자된다. 변화가 있다면 사회적 동물이 사회적 자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관계가 자산이 되는 연결망의 세상이다. 주어진 제목인 '학습관계'를 풀면 학습이 관계고 관계가 학습이다. 초연결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학습은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된 망에서 이루어진다. 관계는 자산으로서 관리를 해주어야 지속된다. 원고를 쓰는 8월 18일 자 연합뉴스 보도 "정부, 모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수도권 4단계 재연장되나"처럼 많은 이가 4단계 재연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가 민감한 이유 중 하나는 불편과 손실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 동물로서의 우리의 본능과 DNA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벌써 작년 4월에 대통령님을 필두로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표준'을 외칠 때만 해도 금방 코로나가 종식되나(AC: After Corona) 싶었는데, 그해 7월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지내야 하는 WC(With Corona) 시대라고 일갈한 어느 그룹 회장님의 말씀대로 1년을 더 살고 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교육 부문에서 학교를 포함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는 목표를 위해 '적시성·종합성·책무성'원칙 아래 '결손 회복' '맞춤형 지원' '교육여건 개선'이란 3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쉽게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성인교육의 회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교육을 포함한 '성인 일상으로의 회복'은 서울시와 구청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포스트 코로나, 50+세대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며’를 주제로 정책리포트를 발간하는 민첩성을 보인 데 대해 50+세대 당사자로서 마음 든든하다. 교육 부문에서 50+세대를 일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으로 K자형 회복 전략을 제안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활용하는 미국 상무부의 K자형 회복 전략에 따르면, K자의 아래쪽 곡선에는



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음식업·환대업·오락업·여행업이 속한다. 회복기로 들어서는 상향 곡선은 기술, 소매,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이다. 교육은 물론 하향 곡선에 해당한다. 중장년 학습 자체가 취약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소득층, 저학력층, 문해교육 수강생들, 디지털 기기 활용과 원격교육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회복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K는 양극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K-Pop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성공 브랜드를 상징하는 K도 된다.

일상으로의 복귀 전략으로서 K자형 전략

일상으로의 복귀 전략으로서 K자형 전략과 함께 BBB 전략을 모색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의 목표인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과 2020년 세계경제포럼의 「세계경쟁력 보고서 2020」에서 보듯이 BBB 전략인 ‘더 나은 미래 재건(BBB: Building Back Better)’이 분야에 관계없이 각광을 받고 있다. 코로나 이후 50+의 회복전략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한 회복(Recovery)과 전환(Transformation)이어야 한다고 세계경제포럼은 제안한다. 세계경쟁력 평가 4대 분야인 가능환경, 인적자본, 시장, 혁신 생태계 중 인적자본 분야 회복과 전환 제안은 중장년 학습회복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요약하면 다음 1~2년의 최우선순위 회복 전략으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의 재훈련 및 기술 향상 확대 △코로나로 인한 일시 해고 제도에서 새로운 노동시장 기회로의 점진적인 전환 관리 △현재 코로나 대응행과 미래 의료 수요의 이중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의료 시스템 수용량 확장을 꼽을 수 있다. 다음 3~5년의 최우선순위 전환 전략은 △교육 커리큘럼 업데이트와 직업 및 미래의 시장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새로운 경제와 노동력의 새로운 요구를 위한 노동법과 사회보장 정책 재고 △노인 돌봄, 보육 및 의료 인프라 확장 △사람과 경제를 위한 접근 및 혁신 확장이다.

학습의 회복으로 가는 우리 중장년의 길은 그리 평탄치 않다. 통계청이 2020년 7월 30일 발표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의거하면, 우리 성인들은 학습에 시간을 거의 쓰지 않는다. 전 국민(10세 이상)의 연령대별 시간사용 중 학습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0~19세(학령기)는 5시간 25분, 20~29세(청년 전기)는 1시간 42분, 30~39세(청년 후기)는 15분, 40~49세(중년 전기)는 8분, 50~59세(중년 후기)는 5분, 60세(장년기) 이상은 2분에 지나지 않는다. 학령기를 지나면 거의 학습에 시간을 활용하지 않는다. 학령기를 지난 성인들의 학습시간의 민낯이다. 학습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에는 인색하면서 정작 일은 73세까지 하고 싶어 한다. 평생학습을 통한 평생고용 가능성 증진은 거의 참이다. 학습 관계망 복원에 앞서 학습에 투입할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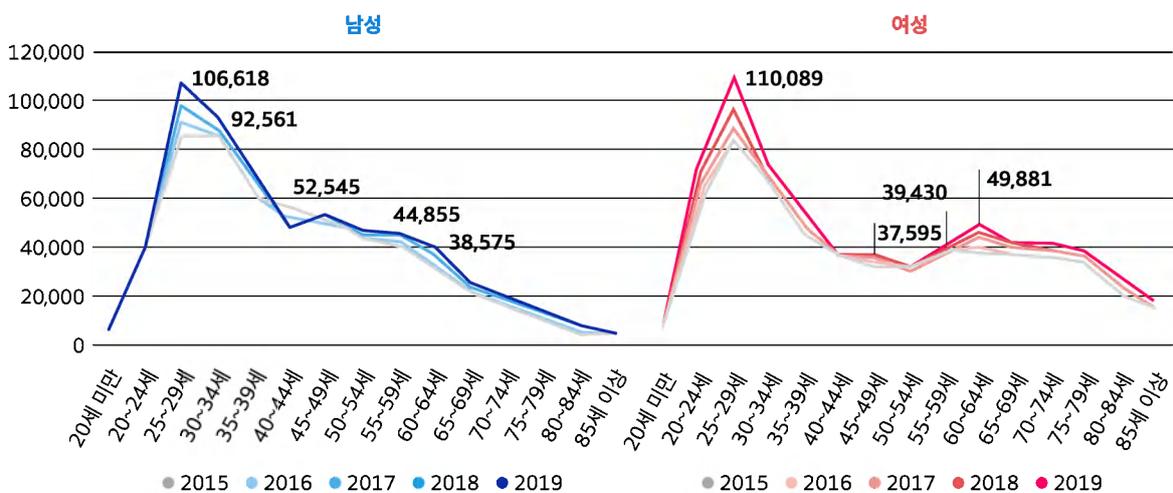
- 관계합동부처(2021)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https://www.moef.go.kr/>에서 2021. 8. 8. 인출.
- 통계청(2020). 2019 생활시간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한혜경(2015).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 파주: 싱크.
- World Economic Forum. (2020).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20. Geneva,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from <https://www.weforum.org/>

서울시 50+ 1인가구와 주거 취약 문제와 대안¹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무엇보다 인간의 본성인 사회적 연결을 차단하고, 단절과 고립된 삶이 서로에게 미덕인 시대를 열었다. 일상의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1인가구들에게 ‘코로나 시대’는 더 많은 위험을 떠안기고 있다. 특히 단절된 삶은 주로 주거 안에서 벌어진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1인가구의 연령특성을 살피고, 중장년 1인가구의 주거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중장년 1인가구의 주거 취약 문제 해결과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제도적 노력을 점검해 본다.

서울시 1인가구 청년, 남성 중장년, 여성 노년 증가 추세

서울시의 2020년 4/4분기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42%에 육박한다. 세대 분류상 1인세대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숫자는 1인가구 증가세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자료이다. 서울시 1인 가구는 연령별 차이가 확연하다. 20~30대 청년을 중심으로 1인가구 인구가 많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보다 제1 피크 연령이 높아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이고, 제2 피크 연령은 40대 후반과 50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1인가구의 제1 피크는 20대 후반이고, 제2 피크는 60대 초반이다. 성별에 따라 1인가구 증가 연령대가 다르다는 얘기이다. 남녀 모두 가장 많은 20~30대를 제외하고 본다면 남성은 중장년에서, 여성은 노년기 초반에서 1인가구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남성·여성 1인가구 연령별 변화(2015-2019)

자료: 서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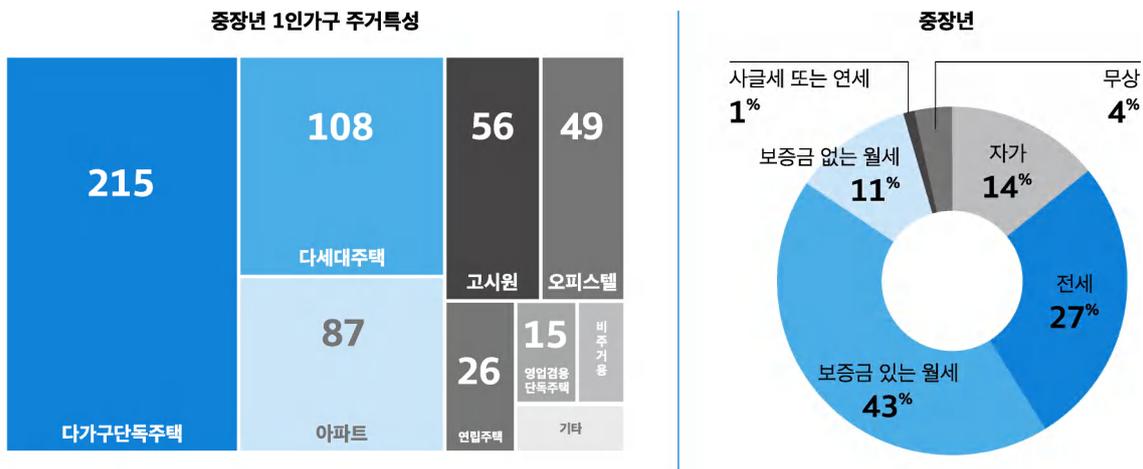
¹ 이 원고는 서울 하우징랩 2021년 주거컨퍼런스(2021. 6. 11.~12.)에서 발표한 원고를 요약한 내용을 밝혀 둔다.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중장년 1인가구 취약성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 2020년 주거실태조사 서울시 현황을 추출하여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연령이 낮고, 학력이 낮으며, 근무와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다가구·단독주택·고시원·오피스텔에서 더 많이 거주하며, 주거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비와 경상소득이 줄어들고, 이사 수가 늘어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월세와 전세보증금이 줄어들었고, 소득과 생활비가 증가할수록 이사 수는 줄고 공간(방) 수는 늘었으며, 주거비용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장년 1인가구의 주거는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아파트, 고시원, 오피스텔 순이었다. 또 중장년 1인가구 주거 점유형태는 보증금 월세 43%, 전세 27%, 자가 14% 순이었다. 그 외 연령대는 주거 점유형태에서 전세와 자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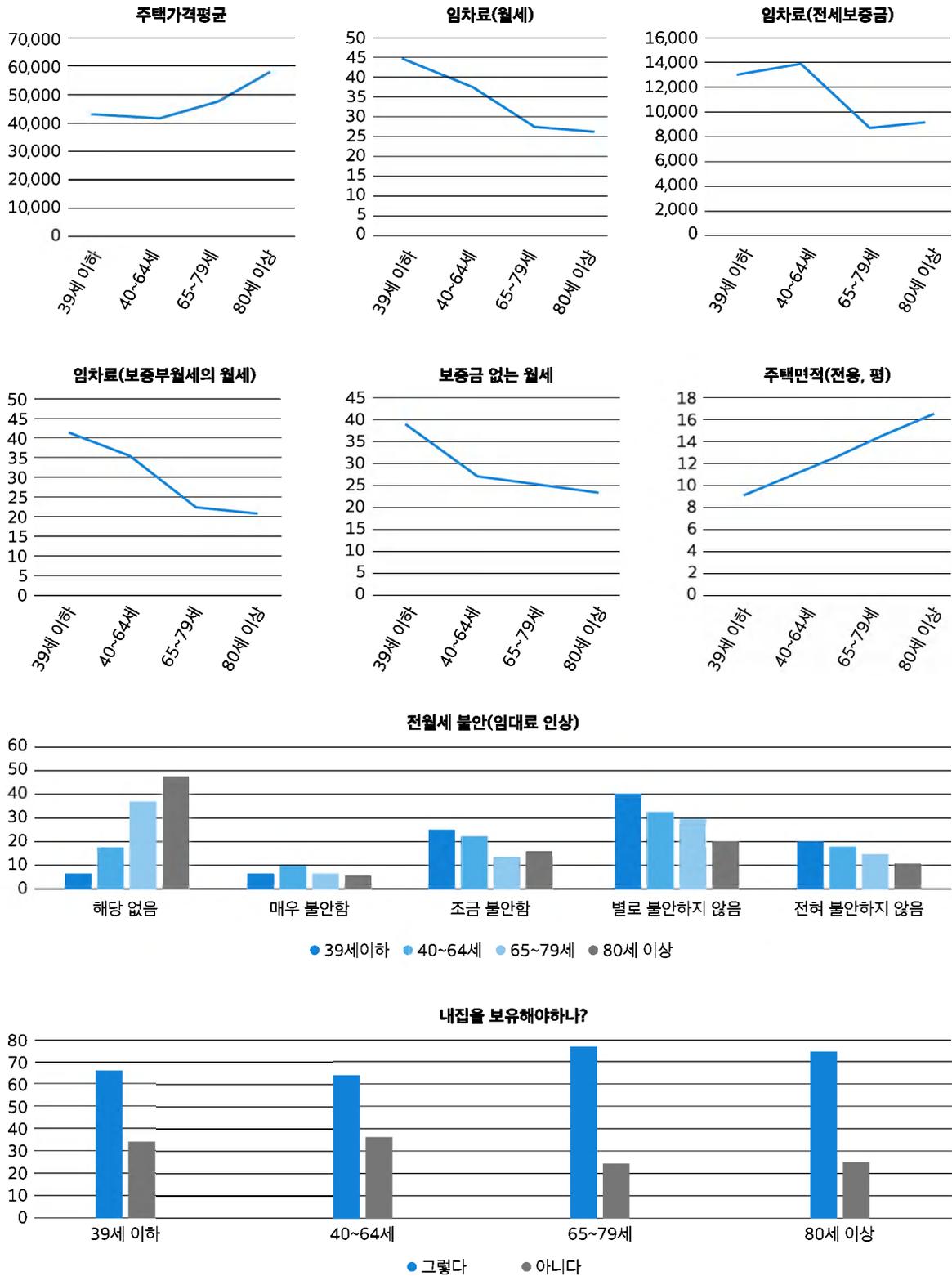
중장년 1인가구 주거 분포와 점유형태

자료: 통계청 주거실태조사2020

중장년 1인가구 주택가격은 평균 4억 정도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편이었다. 월세는 평균 36만 원, 보증부 월세의 월세는 평균 38만 원, 보증금 없는 월세는 평균 27만 원으로 39세 미만에 비해 크게 낮았다. 중장년 1인가구의 전용 주택 면적은 평균 11평이었고, 전·월세 임차료 인상에 대한 불안이 높은 편이며,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았다. 중장년 1인가구는 그 외의 1인가구보다 주거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았고,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소득과 생활비가 증가할수록 공간 규모와 주거비가 높아진다는 통계 결과가 실증되었고, 중장년의 경우 주거를 소유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도 스스로의 주거상황을 임시적 상황으로 보고 투자하려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하였다. 1인가구가 이사가 잦고 주거에 대한 투자가 적은 것은 경제적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임시적 생활'이라는 관점과 관련성이 깊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정주하지 못하는 특성을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 정한 '주거 취약'은 최소 주거[1인당 전용 14㎡(4.24평)]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주거비가 수입의 30% 이상으로 과부담 상태인 경우를 일컫는다. 중장년 1인가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 이하 값에서 주거취약계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취약계층은 우울에서 나쁜 지표를 보인다.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과 남성 중장년 문제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² 실태 분석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고독사 위험계층 중 남성이 65.7%였고, 위험계층 중 55~69세 남성이 41.2%로 나타났다. 고독사 위험계층의 주거특성은 다가구와 주택이 61.2%로 많았고, 아파트(임대아파트 포함)가 25.2%였다(송인주, 2021).

고독사 위험계층 통계는 자료의 성격상 수급자 비율이 높은 만큼 전체 1인가구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중장년의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남성에서 그 문제가 확인되었다. 1인가구 주거의 중장년 특성과 비교할 때 주거비가 낮고, 주거 불만족이 높은 중장년 1인가구에서 고독사 위험이 높아진다고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고독사 위험군은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던 사람이 사망하고 일정 기간 후에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계층이므로, 1인가구 중장년 주거 취약 남성의 고독사 가능성도 함께 위험으로 검토해야 한다.

1인가구, 남성, 중장년 그리고 주거 취약(주거비가 낮고, 주거 만족이 떨어지며, 주거환경이 나후)한 계층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인한 단절과 우울, 질병, 급성 심장마비, 자살 등으로 사망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웃에게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1인가구 중장년 주거취약 문제에 대한 해법과 고민

중장년 1인가구 남성은 임시적 상황에 대한 주거 투자를 적게 하며, 취약한 주거에서 잦은 이사과 취약 환경에서 빚어지는 우울 등의 문제로 사회적·신체적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장년 남성 1인가구는 남자가 혼자 산다는 사회적 시선에서 도덕적 평가를 느끼고 위축된다”는 주장도 있다(Nussbaum, 2015).

서울에서 1인가구는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다. 1인가구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정책적 지원 체계가 새롭게 모색되고 개편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제안은 공공과 민간을 통해 주택 공급 형태를 사회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사회주택은 공용 공간을 두고 개별 호수별로 입주하는 주택방식이다. 이미 만들어진 관계망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으로 건축하고 입주하는 방식도 있지만, 인구사회적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계층끼리 신청하여 입주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제안은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고시원, 다가구 밀집지역에 공공의 분위기가 나지 않는 제3의 공간(the Third Space, Ray Goldberg, 1999)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제3의 공간은 1인가구가 집과 직장 외의 공간에서 쉽하고 함께 정보를 얻고 적당한 익명성과 느슨한 연계를 갖고 이용할 수 있어야

²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은 2020년 장제급여 수급자 자료와 서울시 취약계층 사망동향 보고를 취합하여 집에서 사망한 1인가구를 분류하였다.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중 수급자는 967건, 비수급자는 11건이었다.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걷기, 차모임, 소셜다이닝, 건강상담, 독서, 수다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자연스럽게 마련해 준다. 부담 없는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제안은 주거지원 서비스가 기타 복지서비스와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개인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분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거지원 서비스에는 주거 수리와 소모품 교체뿐만 아니라 이사 후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서비스도 포함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 금융상담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50플러스 캠퍼스 등이 각각의 사업 특성별로 다양한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전달체계를 증설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히 연계되는 상담과 접근 통합적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은 도시적 문제이다. 농촌은 1인가구 비율이 극도로 높지만 고독사가 극히 드물다. 도시의 중장년 1인가구가 각박한 삶과 다양한 문제로 위축되고 시들어가는 요즘, 그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도시의 작은 귀퉁이를 내어줘 문화와 정보와 소통을 입히는 투자가 필요할 때이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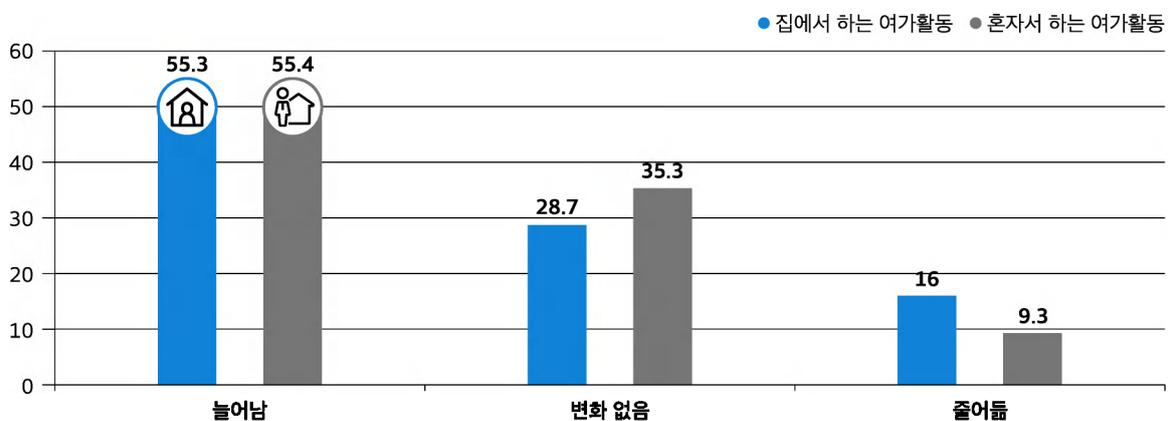
- 송인주 (2021) 중장년 1인가구 위험과 회복을 위한 공간과 주거지원 방향, 2021년
- 주거컨퍼런스 자료집, 서울하우징랩
- 송인주 (2021)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 제1차 서울시 사회적 고립 예방 포럼 자료집, 서울시복지재단
- Martha C. Nussbaum(2015)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 Ray goldberg(1999) The Great Good Place, 제3의 장소, 풀빛
- 통계청(2021) 마이크로 데이터, 2020년 주거실태조사
- 통계청(2021) 주민등록 통계, 2020년 4/4분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50+세대의 여가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서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견되어 감염병 ‘주의’ 단계가 발령된 이후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동성의 제한’이었다. 바이러스 감염 자체에 대한 위험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과의 관계맺기에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에게 외로움과 고독감 등 심리적 부작용을 낳았고, 이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그로 인한 피로감과 우울감을 나타내는 ‘코로나 블루’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새로운 관계맺기의 큰 변화는 비대면 접촉의 증가이다. 외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달음식 주문이 급증하고,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홈트 용품이 증가하였으며, 이동이 제한되어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자 랜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면에 기반한 활동은 온라인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방대한 인터넷 정보 중에서 적절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인터넷 기반에 취약하고 온라인 공간의 경험이 적은 세대나 계층은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데 제약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여가활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해서 혼자 하는 여가활동은 55.4% 늘었으며, 집에서 하는 여가활동은 55.3%나 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가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민 여가활동 조사’에서 코로나19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부가적으로 조사한 문항인데, 실제 이러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기존에 여가시간이 적고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코로나19의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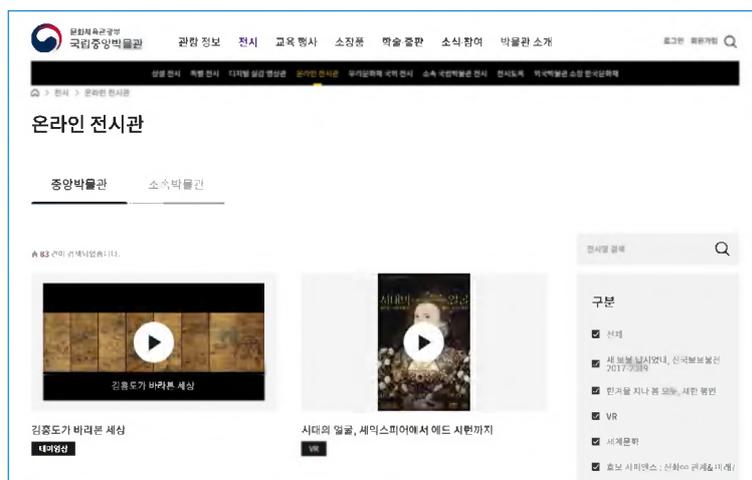
출처: 2020 국민 여가활동 조사 부가조사

그러나 사람들은 혼자서 집에서만 살 수 없다. 결국 혼자 또는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이웃과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심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지낼 방법을 생각해 내었다. 대표적인 것이 ‘발코니 콘서트’이다. 유럽에서 미리 약속한 시간에 주민 여러 명이 발코니에 나와 노래를 부르거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플래시몹’부터 전문 뮤지션들의 콘서트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예술이 사람들의 심리적 우울감을 치유하고 소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역설하는 것이다. 즉 여가활동의 소통과 치유의 역할이 가장 잘 드러난 현장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술활동이나 야외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잘 타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다. 그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였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공연을 자주 갔거나 공예작품을 만들기를 즐기던 사람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장소나 방법만 바뀌었을 뿐 그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자 하는 노력과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50+세대는 과거에 일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들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던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가도 직업처럼 경력(career)이 필요하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이 난다고, 돈이 있다고,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이 지속하는 것이다. ‘놀아본 사람만이 놀 줄 안다.’

그리고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과 접근 경로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박물관이 문을 닫고 미술관이 관람객 수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관람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새롭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요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는 AR, VR 등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잘 모르거나, 어떻게 이용하는지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exhiOnline/list>

개인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지속하는 데에는 혼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거나, 그 방법과 수단을 알지 못하거나, 이용경험이 없거나, 이용하고 싶어도 돈이나 시간이 없어서 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제약에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가활동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여가는 개인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활동이 다르고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욕구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원은 개인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실제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 내가 원하는 대로' 경험하길 희망한다. 이와 같이 개인화된 자신만의 경험이나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맞춤형 컨설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는 여가문화큐레이션 서비스(<http://gn.my-leisure.co.kr/>)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50+세대의 경우 과거 경험이나 인식이 부족하여 여가경력이 제한적이며 이러한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이 적다고 본다면, 이러한 큐레이션 방법을 통해 개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강남구 맞춤형 여가추천 서비스 '여가콕'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년의 재취업과 경력전환 지원¹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년 일자리의 중요성

우리 사회에서 중장년의 재취업은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성인은 평균 50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경험하고 있지만, 은퇴 생활을 위한 연금은 60대 초반에 수령하고 있다. 약 10년 동안 중장년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연금을 수령하는 60대 이후에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중장년들은 노후 적정생활비로 월 145만 원(1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국민연금을 20년 동안 납입한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92만 원에 그치고 있다.

고용불확실성의 확대와 기대수명의 증가, 부족한 생활비, 경력과 전문성을 계속 발휘하고 싶은 욕구 등으로 인해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중장년은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재취업이 필수적인 사회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취업 시장에서 중장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밝지만은 않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중장년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판매나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비율과 비정규직 및 자영업으로의 진입이 증가하고, 주된 경력과 관계없는 일자리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경제적 위축은 중장년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욱 축소시키고 있으며, 플랫폼 시장의 확대에 의해 발생한 일자리들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고 불안정한 특징을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년의 재취업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산업거점과 중장년 재취업의 가능성

지역산업의 성장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중장년이 생애 전반에 걸쳐 형성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다면 기업의 성장과 중장년의 경력 유지 및 안정적인 생활을 촉진할 수 있다.

¹ 서울시 산업거점의 특성과 50+세대 일자리 연계 방향(2020)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①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1단지), 금천구 가산동(2, 3단지).

② 온수일반산업단지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815번길 24(온수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역곡동).

③ 디지털미디어시티

마포구 상암동 일대.

④ 중랑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중랑구 면목동 136번지 일대.



인식 조사를 진행한 서울시의 산업거점

이 관점에서 서울시의 산업거점(서울디지털산업단지, 온수일반산업단지, 디지털미디어시티, 중랑패션지구)에 위치한 기업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중장년 재취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중장년 당사자의 인식과 요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들을 실제 채용하는 기업체의 시각에서 중장년 재취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핵심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산업거점의 특성에 따라 중장년 채용 가능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첨단산업 중심인 디지털산업단지(2.72)와 디지털미디어시티(2.00)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에 대한 채용 의도가 낮은 편이었지만,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랑패션지구(4.06)는 중장년 근로자도 채용하겠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뿌리산업 중심의 온수일반산업단지(2.98)도 보통수준의 채용의도가 있었다. 특히 첨단산업 기업들은 ‘기술 부족’, ‘조직 융화’, ‘적합직무 부족’을 이유로 중장년 채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인력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중장년의 재취업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단순노무는 외국인 채용, 아르바이트 활용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은 숙련이 일정 부분 형성된 인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했던 중장년이라면 적합 일자리를 매칭하는 형태로 재취업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직종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중장년은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형성과 일자리 매칭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폴리텍대학과 서울기술교육원에서 중장년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종과 인원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체들은 고용 비용에 대응하는 숙련이 형성될 때까지 인건비 지원을 희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과 연계해 숙련형성과 채용 장려금 지급을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는 등 중장년의 숙련형성과 채용, 일자리 적응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의 채용 의도가 낮은 첨단산업에서는 중장년의 재취업이 요원한 것일까? 디자인·콘텐츠 등 산업은 40대 중후반에 퇴직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독립하여 창업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년이 재취업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첨단산업에서 중장년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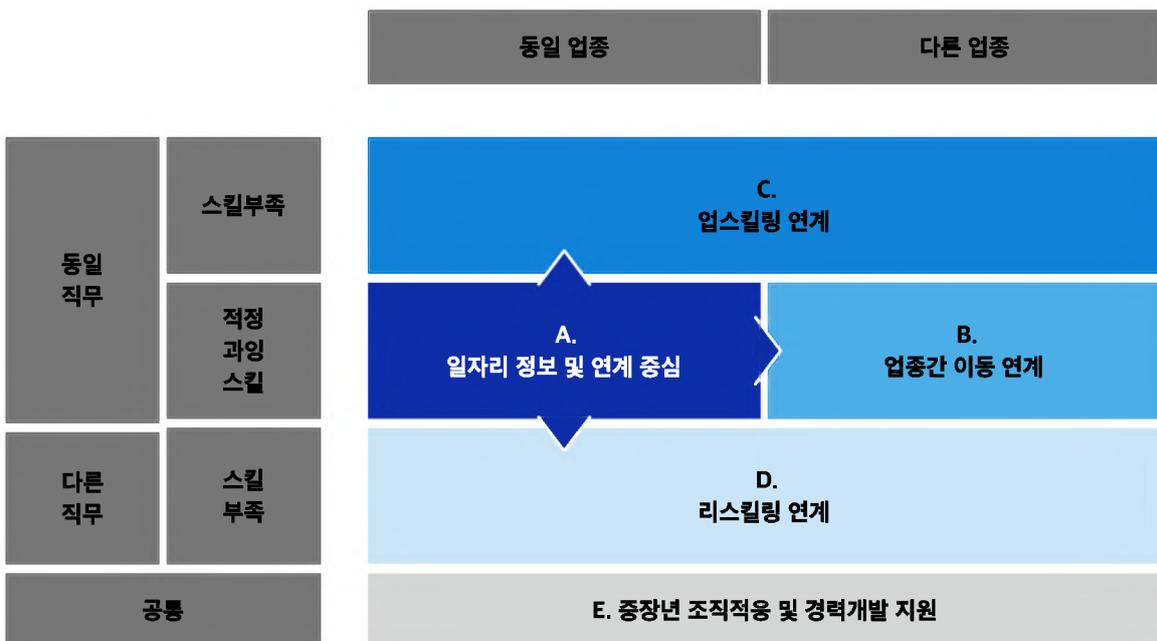
리 매칭과 함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창업, 프리랜서, 협동조합 등의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업스킬링을 통해 첨단산업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산업에 따라 중장년에 대한 채용 의도에 차이가 있었지만, 중장년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희망적인 부분은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평균 3.82점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의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첨단산업과 전통적인 제조기업 모두 중장년에 대한 채용 만족도가 3.68~4.00 수준이었다는 점은 기업에 적합한 중장년 인력을 매칭하거나 숙련형성을 통해 중장년의 재취업을 촉진할 경우 기업체와 중장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산업거점 기업들은 중장년 채용을 비공식적 네트워크(지인의 소개나 부탁)를 활용하는 경향(52.67%)이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50+인턴십 사업처럼 공식적으로 기업과 중장년 근로자의 구인·구직 인력을 매칭하고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 방향

일반적인 산업인력개발의 관점에서 스킬 미스매치와 직종 이동을 기준으로 중장년의 재취업 및 경력전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 정책과 사업은 적정 스킬을 갖춘 중장년과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하는 일자리 매칭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스킬 수준과 유형이 변화하고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해서 직업능력개발을 포함한 재취업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중장년 재취업 및 경력전환 지원 방향

중장년 재취업 및 경력전환 지원을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p>A. 일자리 정보 및 연계 중심 지원</p>	<p>동일업종에서 적절한 스킬을 갖추고 있는 중장년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자리 정보 제공과 매칭을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요구하는 스킬과 중장년이 보유한 스킬 수준이 높다면, 전문가 pool을 구성해 산업별 협회나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별 협의체 등과 협력해 전문가 매칭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킬 수준이 낮은 경우 생계형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 외에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확대해 중장년의 사회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p>B. 업종 간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p>	<p>중장년이 동일한 스킬을 바탕으로 다른 업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것 외에 해당 업종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p>
<p>C. 업스킬링 연계를 통한 일자리 사업 확대</p>	<p>중장년 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신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과 스마트 팩토리 등의 신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년 숙련 근로자의 업스킬링을 통해 이들의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신기술 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면 추가적으로 훈련비가 지원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p>D. 리스킬링 연계를 통한 일자리 사업 확대</p>	<p>주된 일자리와 다른 직무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초기 숙련형성을 위해 교육훈련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패션봉제, 기계, 뿌리산업 등)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중장년 초기 경력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업무수행을 위해서 최소한 숙련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훈련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첨단 지식산업에서 리스킬링을 통해 중장년의 진입이 가능한 일 모델 발굴과 창업, 협동조합 및 프리랜서 등의 경력전환을 위한 리스킬링 지원이 필요하다.
<p>E. 중장년 조직적응 및 경력개발 지원</p>	<p>일자리 정보 및 연계, 업스킬링 또는 리스킬링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장년의 조직적응, 경력설계 및 준비 등을 지원한다.</p>

중장년 재취업 및 경력전환 지원 세부 방안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포스트 코로나 50+세대 라이프스타일 변화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는 코로나19 전후 50+세대의 활동, 소비, 지출, 건강 분야에 대한 변화를 분석해 봄으로써 50+세대들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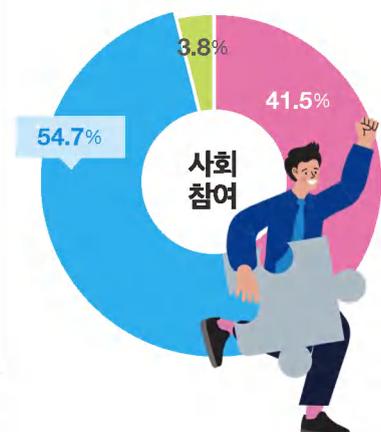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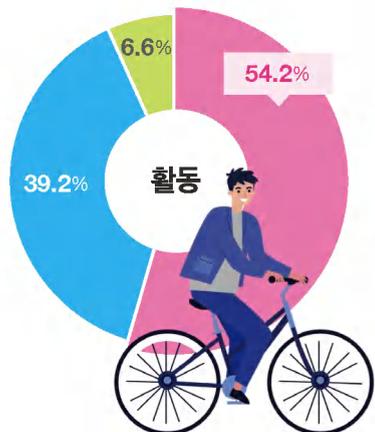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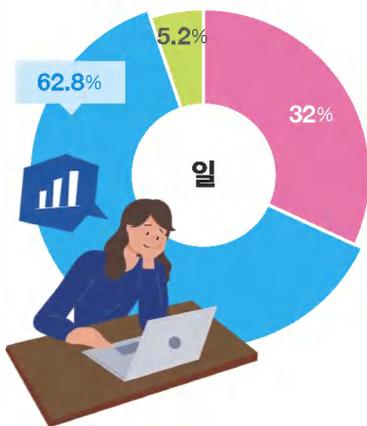


조사대상(서울시민 만 45~69세 3,036명)

01. 본인 활동 범위에 대한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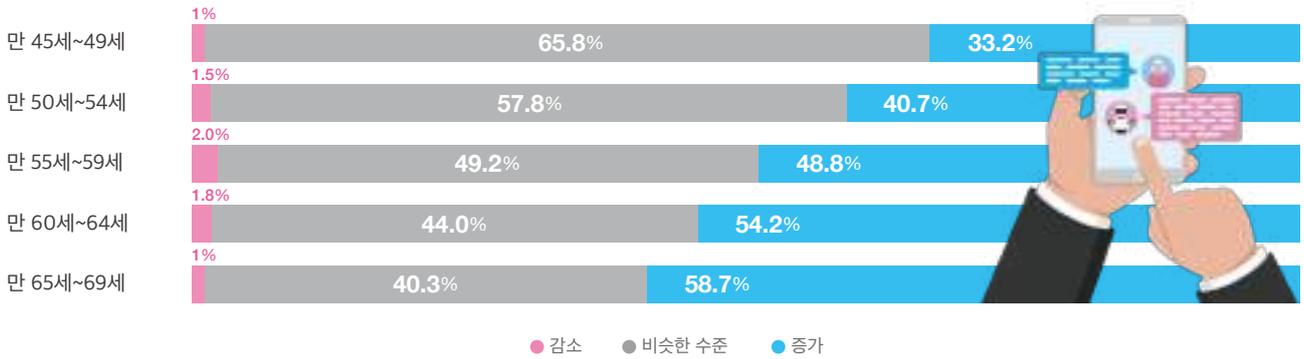
코로나19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활동과 사회참여는 유지되었으며 여가는 축소되었다.

● 축소 ● 유지 ●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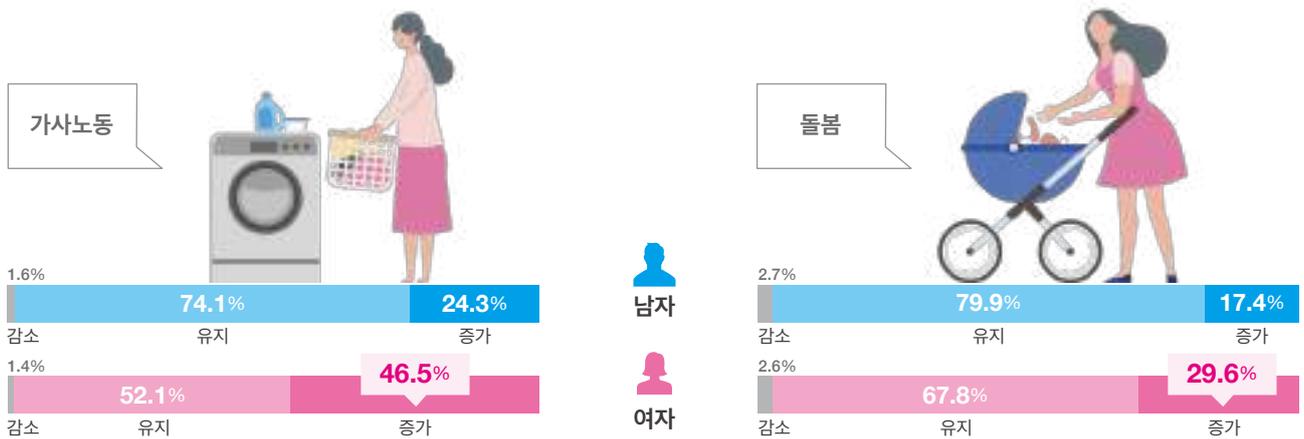
02. 디지털기 사용량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만 60세 이상 연령대의 PC/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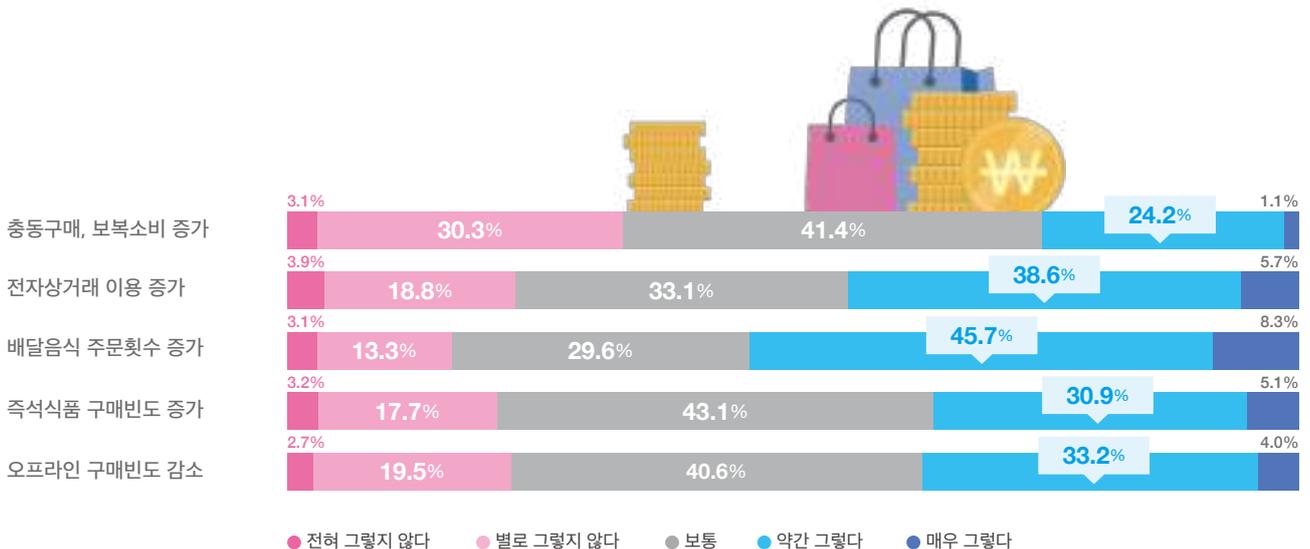
03. 코로나 이후 가사노동 및 돌봄 변화

코로나19 이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과 돌봄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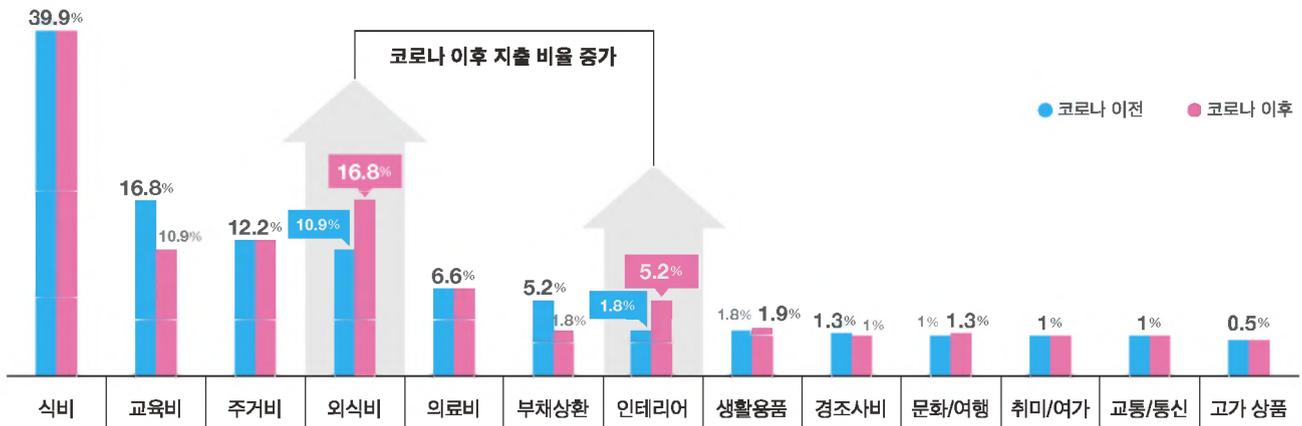
04.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의 변화는 언택트와 편의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자상거래와 배달음식 주문이 대체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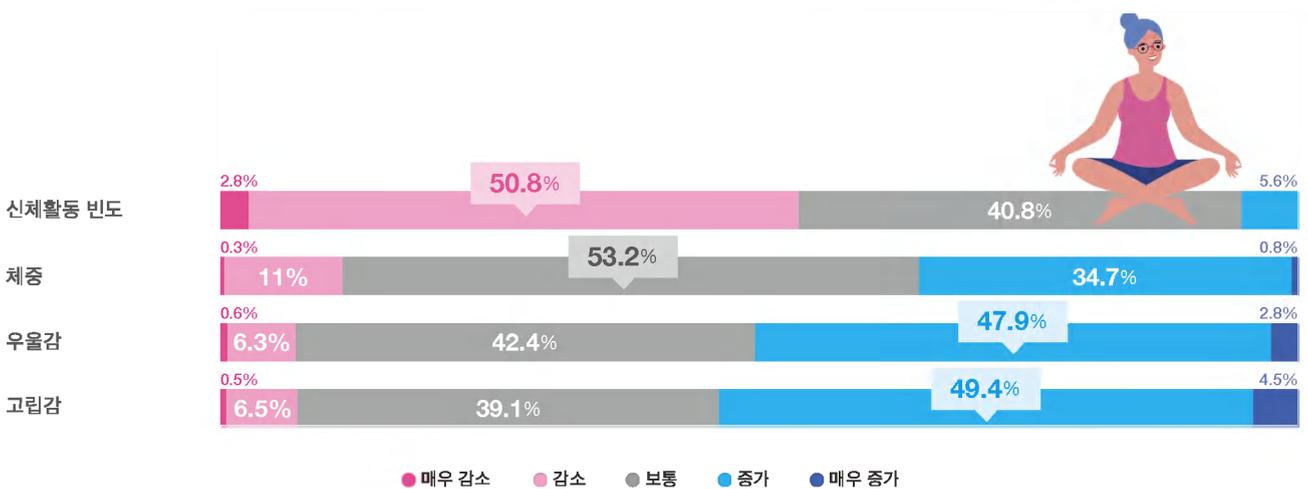
05. 코로나 이전/이후 주요 지출항목 비교

코로나19 이후 주요 지출항목은 코로나19 이전과 전반적으로 비슷했으나 외식비와 가전/가구/인테리어 비용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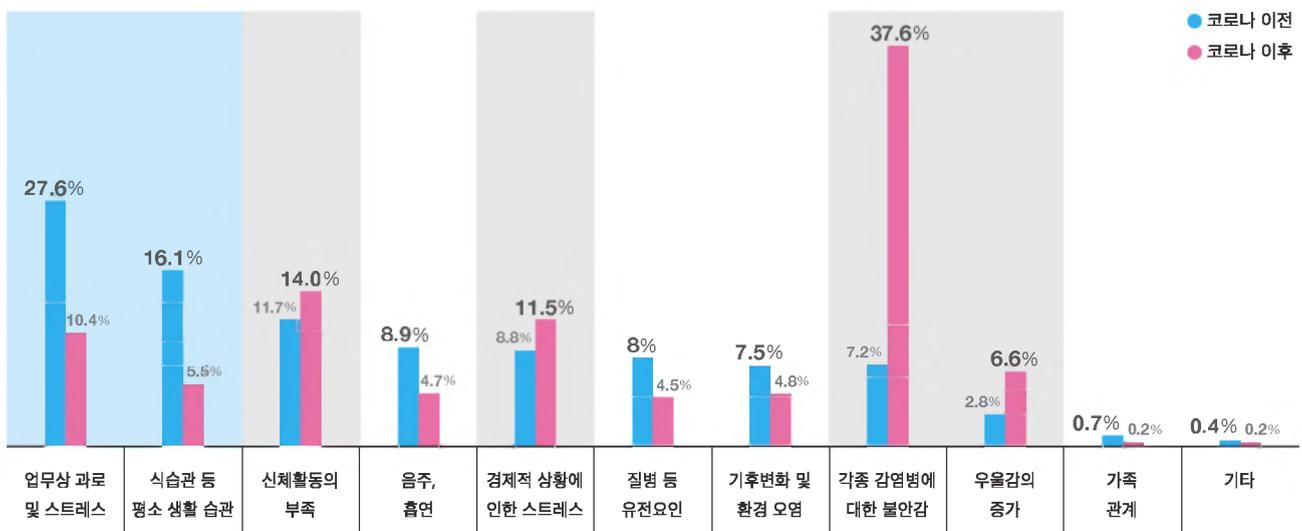
06. 코로나 이후 평소 건강상태 변화

코로나19 이후 평소 건강 상태의 변화는 신체활동의 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립감, 우울감, 체중 순으로 증가했다고 나타났다.



07. 코로나 이전/이후 건강 악화 요인

코로나19 이후 건강 악화 요인으로는 각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으며, 신체활동의 부족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의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노인 정책: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Aging in Place)

“나는 여기서 40년을 살았어요. 다른 어떤 곳보다도 여기가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단을 오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노인 대부분은 가능한 한 자신이 오랫동안 거주해 오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길 희망한다. 이처럼 노인들이 노년에 자신의 거처를 옮기지 않고 자신이 원래 머무르던 곳에서 지내는 것을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이하 Aging in place)’라고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Aging in Place를 “요양원 시설과 같은 대체 거주시설보다는 노인들이 나이, 수입, 혹은 신체적 능력을 포함한 능력의 수준(Ability Level)에 상관없이 자신의 집과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이며,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시설 수용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이 자기 관리 습관을 유지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90%는 그들이 현재 머무르는 거처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들이 자신이 살아오던 거처와 주변 장소에서 살아갈 때 보다 더 독립과 자율성을 누릴 수 있고, 친구나 가족을 포함한 보다 중요한 사람들과의 연결성을 지속할 수 있으며 그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와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Aging in Place 정책은 노인들을 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케어할 때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 신체 변화에 따른 거주환경 개선의 필요성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고 일상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자신의 거주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으며, 그에 따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운동 기능(Motor Functiong)

근력의 약화와 그로 인한 골절상 등으로 보행이 어려워 보행기나 휠체어, 지팡이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이때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구의 입구를 넓히고 손잡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계단이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엘리베이터 의자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미세 운동 기능(Fine Motor Functioning)

파킨슨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손가락 사용이 어려울 때에는 집안에 손잡이를 부착하고, 욕실 비품 등을 개선해야 한다.

인지 기능(Cognitive functioning)

치매 혹은 정신건강의 악화는 노인의 오감과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반응을 느리게 한다. 결과적으로 화재 위험이 감지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화재경보기 등을 거주 시설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 기능 저하에 맞추어 기존 거주환경을 수정하면 노인 개개인이 더 쉽게 일상생활을 수행해 삶에 대한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환경 개선은 노인들이 더 많은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부양가족과 간병인을 돕고, 사고를 줄이며,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로의 수용을 지연시켜 의료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위한 촉진 방안

거주 공간의 개선(Home Modifications)

일반 가정의 환경은 노인에게 위험 요소가 많다.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낙상은 노인들 사이에서 사망에 이르는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샤워실이나 욕실의 지원 부족, 부적절한 계단 난간, 느슨한 깔개, 막힌 통로 등 일상적인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경은 노인에게 낙상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개조하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부상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조치는 거주지에서의 연속적 거주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낙상과 부상 방지를 위한 주택 개조에는 조명 증가, 계단 양쪽 끝의 접근 가능한 스위치 설치, 추가 난간과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 시설, 손에 들 수 있는 유연한 샤워 헤드와 대형 욕조 설치, 깔개와 어수선한 물건 제거, 손이 닿기 쉬운 찬장 마련, 볼륨이 강화된 전화와 초인종 설치 등이 포함된다.

커뮤니티 자원의 활용(Resources in Communities)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자 커뮤니티(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NORCS)는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원하는 노인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이 되고 있다. NORCS는 특정 연령 인구를 위해 특별히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60세 이상의 주민 회중이 협력해 사는 곳에서 발생한다. 이 모델은 지역이나 주 및 연방 자금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사업, 이웃 협회 및 민간 재단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동 수단 지원(Transportation Support)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위해서는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 방문 등을 위한 이동수단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그 뿐 아니라 연구들에 따르면 노인의 운전 중단은 삶의 만족도 감소, 사회적 역할 감소, 친구 네트워크 감

소 등으로 인한 우울 수준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에게 원하는 곳까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동수단의 제공은 지역사회의 연속적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AGING IN PLACE

TIPS ON MAKING HOME SAFE AND ACCESSIBLE

Many older adults want to “age in place” —stay in their own homes as they get older—but may have concerns about safety, getting around, or other daily activities.

 A few changes could make your home easier and safer to live in and help you continue to live independently.



Don't use area rugs and check that all carpets are fixed firmly to the floor.

Replace handles on doors or faucets with ones that are comfortable for you to use.

Install grab bars near toilets and in the tub or shower.

Reduce fall hazards: place no-slip strips or non-skid mats on tile and wood floors or surfaces that may get wet.

Place light switches at the top and bottom of stairs and remember to turn on night lights.

Install a ramp with handrails to the front door.

For more information about aging in place, visit www.nia.nih.gov/aging-in-place.

 National Institute on Aging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위한 거주 공간의 개선 방안

미국 국립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위한 협의회(The National Aging in Place Council)

미국 노인들 중 대다수는 자신의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적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집 또는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들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그러한 희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부터 협의회(The National Aging in Place Council, NAIPC®)가 노인 지원 네트워크로서 활동해 오고 있다. 이 협의회는 다양한 전문가와 커뮤니티들이 미 전역의 각 지역 챕터를 통해 협업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많은 미국의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의 Aging in Place 정책의 예: 메릴랜드주

주정부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보조금 주택(Subsidising Housing for Seniors): 보조금 주택은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의 주택을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연방정부가 후원하는 경제 지원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노인은 시장가격 이하의 임차료 혹은 가구소득의 30% 수준에 이르는 임차료로 노인아파트와 같은 거주 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다.

주거 시설 개선을 위한 저이자·무이자 대출(Accessible Homes for Seniors): 메릴랜드주 주거 및 지역발전부(Maryland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서는 노인들이 집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인 'Accessible Homes for Senior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55세 이상의 메릴랜드 주민이라면 다른 경로의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집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적은 이자 혹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집 안에서의 이동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시설들(예를 들어 벽 손잡이, 난간, 경사로 및 확장된 출입구 등)을 설치함으로써 거동이 다소 불편한 경우에도 집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Aging in Place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하워드 카운티 프로그램

하워드 카운티 노인 지원 전담부(Howard County Office in Aging and Independence)는 노인들에게 거주 시설 옵션(예를 들어 노인 거주 단지, Assisted living facilities, 너싱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을 안내하고 노인들의 독립적 거주를 지원하는 전담 부서다.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위한 재산세 감면(Aging in Place Tax Credit): 동일한 부동산에 40년 동안 거주한 65세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5년 동안 재산세를 20% 감면해 주며, 특별한 소득 요건은 없다.

노인 재산세 감면(Senior Property Tax Credit): 65세 이상의 재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25% 감면해 주되,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자격 제한이 적용된다.

이동수단 제공 프로그램(Neighbor Ride): 저렴한 자원봉사 기반의 보충 교통수단을 제공해 카운티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의료 및 재활 시설 대여센터(The Loan Closet): 휠체어 등과 같은 의료·재활 기기를 무료로 대여해 노인들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거주를 돕는다.

맺음말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Aging in place는 노인들이 사생활, 정체성, 신체적·주관적 웰빙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많은 연구를 통해 노인들 대다수가 자신의 원래 거주지에서 노년의 삶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볼 때, Aging in Place 정책을 장려하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우선의 과제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니즈를 파악하고, 노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주 지역과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노인 개인이 가능한 한 독립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부양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치료비나 요양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이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 미국 국립보건원. Aging in Place: Growing Older at Home. <https://www.nia.nih.gov/health/aging-place-growing-older-home>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Healty Places Terminology. <https://www.cdc.gov/healthyplaces/terminology.htm>
- AARP. Beyond 50.05: A Report to the Nation on Livable Communities Creating Environments for Successful Aging. https://assets.aarp.org/rgcenter/il/beyond_50_communities.pdf
- Pynoos, J. (2001). Meeting the needs of older persons to age in plac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or action. Retrieved August 16, 2007, from the National Resource Center on Supportive Housing and Home Modification Web Site: <http://www.usc.edu/dept/gero/nrcshhm/research/pages/Commission11%20on%20Elderly%20Housing%202001.htm>
- Lawler, K. (2001). Aging in Place: Coordinating Housing and Health Care Provision for America's Growing Elderly Population. Cambridge, MA: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of Harvard University. <https://www.jchs.harvard.edu/research-areas/working-papers/aging-place-coordinating-housing-and-health-care-provision-america%E2%80%99s>
- Himes, C. L., & Fang, C. L. (2007). Social lives in later life. In J. M. Wilmoth & K. F. Ferraro (Eds.), *Gerontology: Perspectives and issues* (pp. 289-305).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World Health Organization. www.who.int/ageing/age_friendly_cities_network
- Mayo Clinic. Aging: What to expect. <https://www.mayoclinic.org/healthy-lifestyle/healthy-aging/in-depth/aging/art-20046070>
- The Helping Home. Aging in Place at Home: The Definitive Guide Part1. <https://thehelpinghome.com/aging-in-place-at-home-definitive-guide-part1/>
- Greenberg, B. R., & Schwarz, J. (2010). Aging in place... with a little help from our friends: An overview for Grantmakers about aging in the community. Healthcare Georgia Foundation. <http://www.philanthropicgroup.com/giaaip050409v2.pdf>
- Curl, A. L., Proulx, C. M., Stowe, J. D., & Cooney, T. M. (2015). Productive and social engagement following driving cessation: A couple-based analysis. *Research on aging*, 37(2), 171-199. DOI: 10.1177/0164027514527624
- Mezuk, B., & Rebok, G. W. (2008).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support among older adults following driving cessation.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5), S298-S303. DOI: 10.1093/geronb/63.5.S298
- National Aging in Place Council. <https://www.ageinplace.org/>
- Katz, S. (2005). *Cultural aging: Life course, lifestyle, and senior worlds*. Peterborough, ON: Broadview Press.
- Maryland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cessible Homes for Seniors. <https://dhcd.maryland.gov/Residents/Pages/ahsp/default.aspx>
- Maryland Department of Aging. Subsidized Housing.
- <https://aging.maryland.gov/accesspoint/Pages/Subsidized-Housing.aspx>
- Maryland Montgomery County Government.
-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senior/housing.html>
- Howard County Office in Aging and Independence. <https://www.howardcountymd.gov/aging>
- U.S. National Institution on Aging. Aging in Place: Tips on Making Home Safe and Accessible. <https://www.nia.nih.gov/health/infographics/aging-place-tips-making-home-safe-and-accessible>

‘캐나다 카운슬링 교육 및 연구기관(CERIC)’의 ‘전문가용 경력개발 프로그램’ 소개

대상: ‘인생 1막을 마친 퇴직으로의 전환자(55~67)’ 프로그램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각 국가는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등의 키워드로 인해서 일자리와 관련하여 이전과 다른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이나 조치를 내놓고 있다.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각종 정책이나 조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주도의 비영리기관에서도 여러 가지로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카운슬링 분야의 경력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캐나다의 비영리기관 ‘캐나다 카운슬링 교육 및 연구기관’(CERIC, Canadian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for Counselling, 이하 CERIC으로 칭함)의 ‘전문가용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프로그램 중에서 ‘인생 1막을 마친 퇴직으로의 전환자(55~67세)’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면서 해외의 프로그램 발전 동향과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려고 한다.

1. 기관 소개



CERIC는 2003년 11월 일단의 카운슬링 전문가들이 경력개발 전문가들의 일상 업무와 전문역량 향상을 지원할 목적으로 새로운 연구 및 교육조직을 구상하면서 탄생하였다. 운영재원을 ‘캐나다 카운슬링 재단’의 지원으로 마련하는, 카운슬링 분야의 중립적 기관이다.

주요 활동으로 경력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저널 발간’ ‘웨비나(webinar) 개최’ 등과 함께 국가적 수준의 콘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카운슬링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기관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공공의 선’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경력개발의 촉진과 경력개발의 지식 구축’에 두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가치 추구 및 경력개발 중심의 에코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일명 ‘캐나다의 경력개발

문맹 퇴치'를 위해 경력개발 관련 기업·기관의 고용주와 정부 정책입안자 및 교육자들의 협업도 주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력개발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구상하고 전파하면서 경력개발 카운슬링 전문가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고객들의 정신적·감성적인 웰빙(wellbeing)도 지원한다.

2. CERIC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CERIC의 중점업무인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개발의 촉진과 경력개발 지식구축' 업무 중 하나로, 캐나다 세인트메리대학교에서 경력개발 전문 카운슬러로 근무하고 있는 카렌 셰퍼와 줄리아나 위엔이 공동 저작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6가지이다. 그 프로그램 제목을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고등학생, 청소년
- 고교 이후의 학교 재학 중인 자 혹은 1~2년의 '갭 이어(gap year)¹'를 보낸 자
- 일 경험이 있으나 1년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교육경력 대비 능력 이하의 일을 하는 자(22~35세)
- 인생 1막을 마치고 퇴직으로의 전환자(55~67세)
- 캐나다로 이민 온 자



경력개발 프로그램 매뉴얼

출처: <https://ceric.ca>

CERIC에서 발간한 위 6가지 경력개발 프로그램 매뉴얼은 내용을 구성할 때에 '8가지 가이드 원칙(guiding principles)'과 '5가지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가지고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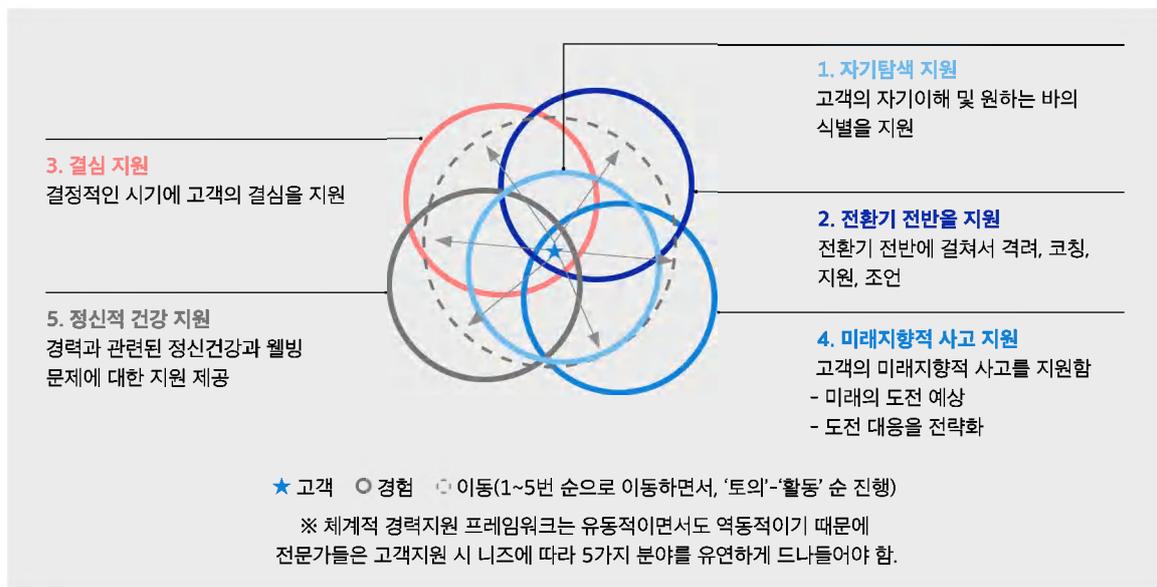
¹ 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봉사·여행·진로탐색·교육·인턴·창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출처: 위키 백과)

‘8가지 가이드 원칙’

1	경력개발은 유급·무급의 활동을 융합하고 관리하는 일생 동안의 프로세스임	학습, 일(고용 혹은 사업), 자원봉사, 여가 등
2	개인의 흥미, 신념, 가치, 스킬 및 경쟁력을 식별하고, 시장의 니즈와 연결함	
3	자기주도적인 설계로의 개인은 자신의 경력개발 및 설계에 책임을 짐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음
4	종종 교육자, 가족, 동료, 상사 그리고 공동체에 의해 설계되거나 지원을 받음	
5	동적인 진화, 지속적인 적응과 회복탄력성이 요구되는 여러 번의 개발 및 설계 필요함	
6	여러 가지 대안을 이해하는 가운데, 목적이 있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설계	
7	보유한 재능과 잠재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나, 자신의 성장과 성공을 정의해야함	필수적으로 선행적인 철자를 거치는 것은 아님
8	복잡다단한 과정으로서 설계 제약요소 등 처해진 상황 이해 및 해결이 핵심임	내재적 제약요소: 재무적, 문화적, 육체적 건강 등 외재적 제약요소: 고용시장, 기술 등

경력개발의 핵심요소를 정의하고, 경력개발 개념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치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8가지 가이드 원칙은 고객, 고용주, 채용지원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가족들의 시작점 역할을 해준다. 이 원칙들은 대상자로 하여금 경력개발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는데, 더욱 풍부한 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경력개발의 동적인 성격도 강조하고 있다.

‘5가지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는 고객 중심의 접근법인 체계적 경력지원 프레임워크로, 무엇보다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위의 6가지 프로그램 각각의 ‘토의 및 활동’을 표준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자기탐색 지원’ - ‘전환기 전반을 지원’ - ‘결심 지원’ - ‘미래지향적 사고 지원’ - ‘정신적 건강 지원’ 순으로 각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토의, 대화의 시작점, 강건한 개입 그리고 재미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각 프로그램은 위 5개 프레임워크별로 ‘토의’ 및 ‘활동’ 순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3. 퇴직으로의 전환자(55~67세) 경력개발 프로그램 구성 소개

퇴직으로 전환하는 55~67세의 고객들은 상당한 기간 지속한 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중견 혹은 상급 간부직을 지낸 상급 계층이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일한 이후에 은퇴하여 시간제 혹은 다른 형태의 경력경로나 라이프스타일로 전환하고 있다.

‘살기 위해 일한다’라는 철학을 고수하던 이들은 퇴직에 안도감을 느끼는 반면 일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던 이들은 전환을 또 다른 도전적인 일로 보고 있다. 퇴직자 대다수는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퇴직과 관계없이 이런 형태의 전환을 일의 전환 혹은 개인경제의 전환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과의례로도 생각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프레임워크별 ‘토의’와 ‘활동’에 비추어 이 프로그램의 주요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문헌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 책자에서는 세부적인 토의 및 활동내용을 전개하면서, 필요한 워크시트나 부가적인 내용도 부록으로 제공한다.

프레임워크	진행	
	토의 내용	활동 내용
1. 자기탐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사는 방법’에 대한 그림 그려보기 ○ 자신의 경력에서 자랑스러운 것은? ○ 주위의 변화경험자 탐색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을 정의해 보기 ○ 강점검사(VIA 강점검사) * 매주 강점 하나씩 실행해 보기
2. 전환기 전반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구전략 지원 *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열린 문은 어디에? 느끼는 점은? ○ 장애물 해결 * 불확실성을 어떻게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물 해결 * 퇴직 이후 1주일의 세부적 계획 작성(시간사용 차원)
3. 결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이전 절차 촉진을 위해 밟아야 할 단계는? ○ 결심지도 그려 보기 * 단기·중기·장기적 결심은? * 추가적 결심 요소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색활동 * 퇴직 시 탐색활동 목록 작성 * 우선순위 아이디어 연구 ○ 결심사항 탐색 마인드 맵 작성
4. 미래지향적 사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상·최악의 미래 예상 ○ 상호접촉의 유지 * 관계향상 계획이나 시스템은? ○ 5~10년 계획을 그려 봄 * 살고 있는 곳, 활동, 주위 사람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탄력성 연습 * 도전 극복을 위한 스킬은? * 자신의 극복 능력은? ○ 재무적 문제해결 * 전문가에게 재무문제 자문 * 미래 수입관리 통찰력 증대
5. 정신적 건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 시의 충격 관리 ○ 고뇌 및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관찰 및 처리 ○ 고독감과 슬픔의 느낌과 영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척도로 불안감 정도 측정 ○ 필요시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

퇴직으로의 전환자 경력개발 프로그램 주요 내용

4. 맺음말

CERIC의 6가지 프로그램은 앞서 설명한 ‘가이드 원칙’을 적용하여 5가지 프레임워크 내에서 ‘토의’와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참여자들이 퇴직 이후에 할 일을 살펴보면서 자각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원칙과 프레임워크만 설명하고, 유연한 토의와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점이다.

CERIC에서는 ‘커리어 작업이라는 예술은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시된 니즈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운영철학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단계적인 프로세스의 윤곽을 제시하지만, 진행 도중에 니즈에 따라서 운영철학도 가지고 있다. 그를 위하여 이론중심이 아니라 고객을 지원하는 다양한 토의, 개입 그리고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벤치마킹해 볼 만한 일이다.

참고문헌

- Karen Schaffer & Juliana Wiens (2019). The Career Work in Action series: *Career-Work-in-Action-Discussions-and-Activities-for -Professionals Transitioning-to-Retirement* (*본문에서 소개한 55~67세 프로그램)
- <https://ceric.ca/>(*CERIC 홈페이지, 발간물에서 중점 소개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가능)

5 0 +
리포트
2021

2021년 04호 Volume 28

04

Issue

위드 코로나 시대
50+세대의 지원 방향

이슈 PICK 128	뉴노멀 시대의 서울시50+정책의 미래 비전 황윤주
이슈 PICK 137	퇴직을 앞둔 재직자를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실태와 정책 제안 김대중
이슈 PICK 142	서울시 50+보람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강소량
이슈 PICK 148	서울시 중장년과 스마트복지 조규형
인포그래픽 152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포스트 코로나 50+세대 미래 삶에 대한 전망과 인식 송민혜
글로벌 50+ 155	"Das Leben Leben: Live your Life" 당신의 삶을 살라 미국의 원격의료 박민경

뉴노멀 시대의 서울시50+정책의 미래 비전

중장년 정책의 필요성, 그 특별함에 더하여 앞으로 서울시50+정책의 방향은?

2021년 시작과 함께 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는 <50+리포트 특별호: 2월 발간>을 준비했다. 특별호의 주제는 ‘중장년 정책의 필요성, 그 특별함’으로, 2021년이 서울시50+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설립된 지 5년(2016년 4월 창립)이 되던 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이 넘어가는 시기로 과거 5년의 평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지난 2월의 특별호로부터 다섯 번째 기획이자 올해 마지막 호인 04호(11월 발간)에서는 2021년 정책연구센터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50+정책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50+정책 태동 5주년을 맞이해 2021년 정책연구센터의 연구과제는 지난 5년간의 서울시50+정책을 평가하거나 분석·진단하고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 큰 틀에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거나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거시적인 것에서부터 세부적으로는 서울시 50+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개선안과 고도화를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 외적으로는 50+동향리포트를 통해 <기후와 환경문제> <1인가구와 돌봄> <포스트 코로나, 50+세대의 일상의 준비> <50+지원 정책> 등의 주제로, 50+세대가 사회문제에 동참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도 다양한 정책제안과 정보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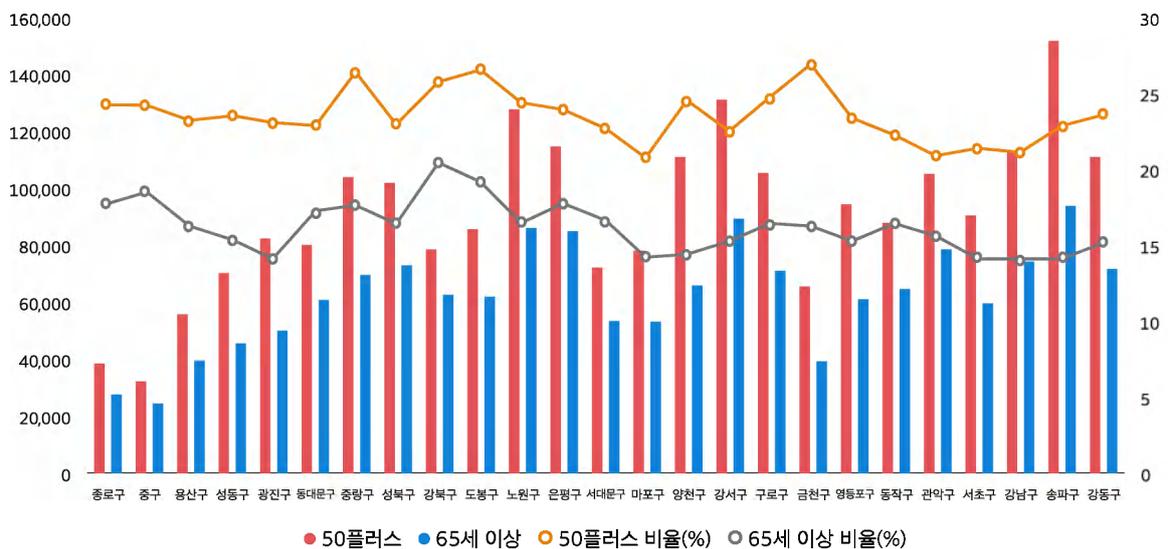
특히 <서울시50+정책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 연구>를 통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5년간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향후 50+정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연구는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데 주요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50+정책의 운영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50+정책은 초기 설계대로 작동했는가

- 지난 5년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의 종합서비스를 구축·제공
-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측면에서의 중장년 정책은 통합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을 통했기에 가능
- 50+정책에 있어 재단의 존재가치는 체계적인 정책전달 구조의 중심점 및 지원정책 일원화, 중장년층의 생애전환에 대한 전문조직의 필요성, 인생2모작에 대한 탐색과 연구를 통한 사업연계, 서울시 내·외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 등에 있음

서울시50+정책은 공공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공공성, 지속성, 기존 조직과 차별화된 형태로 중장년층의 인생재설계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인생재설계지원 사업의 공공성은 사전적·예방적 성격이기 때문에 시장(market) 또는 민간영역을 통해서 추진하기 곤란한 만큼 공적 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장년층의 조기퇴직과 고용의 불안정성 증가는 장년층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수준의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재설계 지원 사업이 상당 기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싱크탱크'와 유형의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 설립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50+세대 공간인 권역별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이하 캠퍼스) 개관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여기에 자치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50플러스센터(이하 센터)를 포함해 서울시50플러스정책의 체계적인 정책전달 구조를 완성한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9월 현재 서울시의 중장년층은 240만 명으로 재단설립 초기인 2016년 220만 명에서 상승했다. 생산인구로 중장년층의 가치상승 지속, 사회적 효용성이 불가항력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상황에서 서울시중장년층(만 50~64세)은 서울시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만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 고도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50+정책은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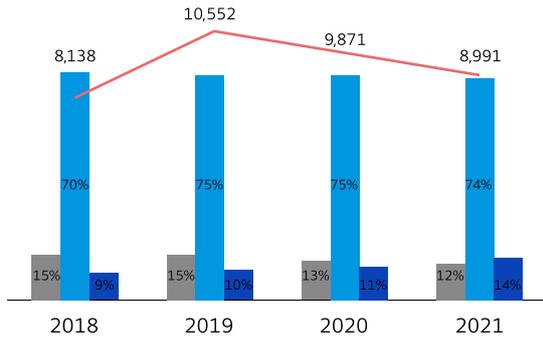
자치구별 50+세대, 65세 이상 인구 비교

위 그래프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별 50+세대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비교할 때, 모든 자치구에서 50+세대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세대보다 중장년층 인구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성은 적어도 1세대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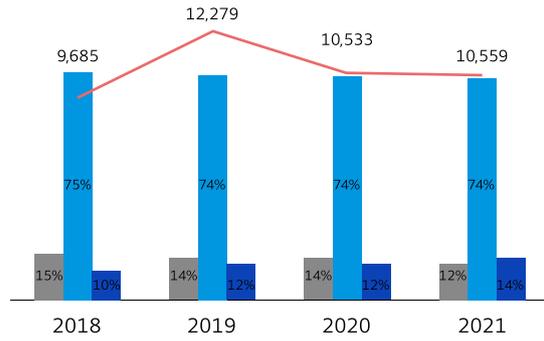
실제 5년간 캠퍼스와 센터 이용자를 분석해 보니 50~64세 이용자가 75%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55~59세 연령대 이용자가 27%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60~64세 26%, 50~54세가 21%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노인복지 대상인 65세 이상의 이용률은 14% 이하였고, 특히 70대 이상 이용률은 2.2%에 그쳤다.

● 50세 미만 ● 50+세대(50~64) ● 65세 이상 ○ 전체 이용자수

※2018~2021년 서울시50플러스포털 가입자 분석



50플러스캠퍼스 이용자 수, 연령별 이용률



50플러스센터 이용자 수, 연령별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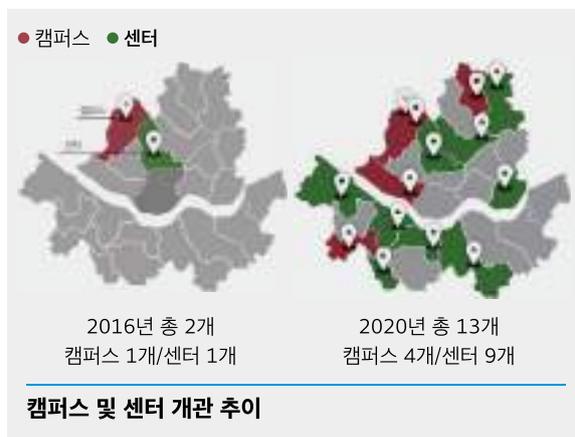
그중에서도 보람일자리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령대는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세대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50+정책 대상은 40대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50+정책의 의미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노인인구 집단’이 될 중장년세대의 인생재설계였던 만큼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후준비’라는 큰 틀에서 역할과 기능을 수정·보완하면서 시대상에 부응하는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서울시50+정책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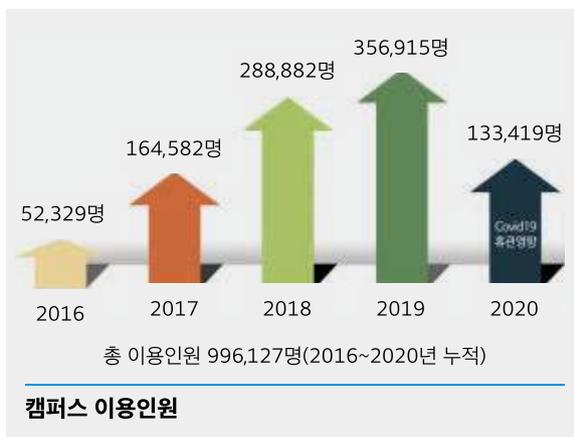
① 50+세대 공간과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서울시50+정책의 최대 성과는 50+세대의 공간과 정책 전달체계 및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4개 캠퍼스와 10개 센터 개관으로 중장년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해 활동 플랫폼이라는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상담, 교육, 일·활동 연계, 자발적인 모임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50+정책 전달을 공간중심으로 설계함으로써 중장년층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주제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고 국내 최대 50+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50플러스포털)을 구축(2018년 1월)했다.



캠퍼스 및 센터 개관 추이



캠퍼스 이용인원

②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기반으로 한 생애전환 체계 마련

· 생애전환 교육을 통해 중장년층의 '인식전환' 기회 제공

서울시50+지원 종합계획(2016)의 첫 번째 과제가 '인생재설계 교육'이었던 만큼 중장년층의 삶의 경로에 대한 '전환'의 출발점으로 교육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확대됐다.(※2016년 4,706명에서 2020년 11,819명으로 교육생이 증가)

50+정책의 종합서비스의 대표 사업인 생애전환 교육을 통해 퇴직자·은퇴자들이 향후 인생 경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50+교육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교육을 통한 인식전환이 가져온 행동의 변화가 어떠한지는 다음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사회공헌 코딩강사 과정'을 통해 장애인 대상 교육 강사를 양성한 후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장애인 대상 디지털 문해 교육사업에 수료자 9명이 참여하고 2명이 정식 취업을 했음. 또한 '남자의 부업'이라는 과정에서는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요리 교육을 하고 교육 수료 후 자원봉사단을 결성해 서울역 쪽방촌 주민에게 반찬 도시락 300개를 제공하고, 이후 관련된 커뮤니티를 결성하기도 했음.(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실적보고서 중에서)

· 중장년층의 '경력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일·활동 연계

재단의 일자리사업은 중장년층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대표적 사회공헌일자리인 '50+보람일자리'는 참여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50+보람일자리 2016년 10개 사업에 472명 참여 ⇒ 2020년 24개 사업에 1,067명 참여), '서울50+인턴십'은 주된 일자리를 떠나 새로운 영역·지위·환경에 안착하기 위한 현장경험과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경력전환 디딤돌 프로그램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가 다음의 경력설계 경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첫째 172명이 참여했고, 2020년에는 총 316명이 참여해 1.5배 이상 증가) 50+보람일자리와 서울50+인턴십의 높은 참가율은 해당 사업이 중장년에게 새로운 경력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2막의 새로운 시작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③ 새로운 노년의 상,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중장년 확인

지난 5년간 서울시50플러스정책은 새로운 노년상,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중장년을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캠퍼스 공간 기반으로 모인 당사자 주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50+세대 문화 형성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 50+인생학교 자치회(800여 명), 50+커뮤니티(1,162명), 당사자 연구(49건), 시민교육과정(488건), 자원봉사단(793명), 보람일자리(3,723명) 등 다양한 활동 주체로 성장

서울시50플러스정책에서는 중장년을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기획과 참여 주체로 바라보면서 중장년의 커뮤니티 모임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등 당사자 중심의 정책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대

표적으로 같은 세대인 중장년층을 공감하는 동년배 상담가가 50+상담센터 안에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며, 중장년이 학습 및 취·창업 준비 또는 공익 목적으로 팀을 결성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50+커뮤니티가 있다. 특히 50+당사자가 기획한 교육과정과 당사자 연구를 통해 직접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당사자의 현안을 주제로 연구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역량을 성장시키는 과정은 다른 기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당사자’를 ‘사회적 자본’으로 한 노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이라 할 것이다.

④ 서울시50+정책의 확산

서울시50+정책은 중장년층인 ‘50+세대’라는 특정한 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혁신성을 찾을 수 있다. 201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가 제정된 뒤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장년층 인생2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가 제정된 18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는 센터 및 캠퍼스가 설치돼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곳이며, 7개 자치구는 센터가 설치·예정돼 있지 않으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생2모작 지원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전국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곳과 기초자치단체 39곳에서 조례를 제정해 중장년세대 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를 포함해 총 68곳으로 50+정책의 파급성을 알 수 있다.

50+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표창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보건기구(WHO)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된 것 등이 서울시50+정책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7.09	OECD공공부문 혁신우수사례 선정
2017.11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9.02	50+정책 분야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종합 1위
2020.09	WHO 서태평양지역 제1회 혁신포럼 사회혁신사례 선정
2020.12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유공 행안부 장관 표창
2020.12	대통령 직속일자리위원회 우수사례 선정
2021.07	노후준비 지원 기여공로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서울시50+정책 2기, 그 도약을 준비하다

① 변화하는 50+정책환경 대응

서울시 전체 인구 중 5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6년에도 여전히 23%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중에서도 50+세대 1인가구의 비율은 2016년 18.7%에서 2021년 현재 20% 이상으로 증가했고, 향후 50+세대 1인가구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과 달리 단기간 내 독거노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노후준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만큼(성혜영, 김아람, 2020) 50+정책의 방향성에 인구통계적 측면은 중요한 변수다.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OECD 국가 중 최고 빈곤율(49.6%)을 기록한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노인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사회에서도 노년층보다는 '신중년'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50+정책은 이렇게 젊어지는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 여가나 개인 활동을 위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싶지만 생계만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과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한 만큼 일과 고용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미래사회 위기요인이 증가함으로써 중장년 세대의 디지털 역량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는 50+정책방향의 큰 줄기가 돼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 사회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 전환이 50+세대에게 당면한 숙제다. 2021년에 정책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서울시 중장년지원제도 만족도 및 요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 실습, 체험공간 등의 시설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0%(매우 필요 39.1%)로 가장 높았으며, '중장년 대상의 디지털 교육 활성화'도 86.2%(매우 필요 38.1%)로 집계되는 등 50+세대의 디지털 정책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년간 서울시50플러스정책은 참여자의 다양성이나 범위 측면에서 한정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이는 서울시50플러스정책 사업이 서울시 중장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50플러스캠퍼스의 실질적인 이용자들은 소득계층별 분포에서 중산층 이상일 확률이 높기 때문임(주용국, 신민주, 2020).
- 따라서 저·중소득층의 50+서울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좀 더 많이 만들고, 50플러스정책의 결과가 청년, 40대, 노인 등 전 세대에 긍정적 효과로 귀결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중하위층 50+세대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과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사업대상의 연령을 50+(50~64세)에 국한하지 않고 다소 유연하게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중장년 지원정책의 수립 및 정책집행 시 연령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년의 특성 여부를 더욱 고려해 유연하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정철영, 2021).

이와 같이 인구사회 및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50+정책에 대한 다양한 내·외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서울시50+정책의 2기 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다.

· 서울시50+정책 전달체계 통한 정책 선도

서울시50+정책은 50플러스재단-캠퍼스-센터 간 50+정책 전달체계 개편 및 협력체계 마련으로 상호 강점을 강화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50+정책 선도를 위해 중앙정부 정책(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 지원 등)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자체 노후준비기관과의 협력 및 정책 공유를 통해 정책의 중복성을 피하고 핵심 정책사업 중심으로 규모를 키우면서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한다.

· 50+정책의 보편화를 위한 생애설계 서비스 확대

캠퍼스와 센터마다 구축돼 있는 '50+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전환기 생애설계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 지난 5년간 실시했던 '7대 영역 생애설계상담'을 4대 분야(일, 자원봉사, 관계, 재무)로 개편하고 고도화해 서울시50+정책의 목적을 선명히 하면서 상담인력의 전문화와 4060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50+가 되면 인생 후반기 생애설계를 위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서

비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을 통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제시해 50+세대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인생후반기 생애경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 상담 외에 교육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캠퍼스와 센터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생 후반기 경력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생재설계를 위한 대표 과정인 '50+인생학교'의 강화 및 사회참여 연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50+교육체계 고도화가 가장 큰 숙제라 할 수 있다. 이에 학습지향의 정보지식 습득에 대한 50+시민들의 요구는 서울시내 대학과 연계하거나 서울시평생교육원과 연계하고, 직업기술 함양을 위한 전문직업훈련은 서울시내 기술교육원과 협업하는 등 생애전환을 위한 인생재설계 측면의 50+교육을 강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50+시니어일자리 생태계 조성

서울시50+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50+세대의 '일자리'이지만 중장년층에게 '일'은 「밥」과 「존재」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담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50+일자리 정책은 기존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재취업 일자리 알선을 넘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다(주용국, 신민주, 2020). 과거 5년간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필두로 보람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선보였다면 향후 50+정책의 중장기 일자리의 방향은 창업·창직, 전직지원, 사회공헌형 일자리 영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략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활동의 고도화를 통해 50+세대의 사회적 자본화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 『중장년 창업·창직 지원 허브 조성』을 통해 공간·성장·투자 지원 특화 중장년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장년 창업특화 기능을 지닌 50플러스 동남캠퍼스 개관이 2022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중장년 창업성공을 위한 성장단계별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2) 평균 퇴직연령이 49.3세이고 준비 없는 퇴직으로 재취업 희망비율이 88%에 이르지만 재취업지원서비스 이용비율은 19.5%에 불과(1,000명 이상 사업장 기준, 2019년)한 현실에서 비자발적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2020년 5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1,000명 이상 기업 50세 이상) 대상에서 제외된 1,000명 이하 중소기업 퇴직자와 자영업자 등 소외층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가 요구된다. 직업·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서울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서울형 전직지원서비스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3) 사회공헌일자리로 일과 보람, 지속적 경제활동으로 건강한 장노년기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초기 서울시50+일자리 정책의 기초였던 만큼 중장년의 경험·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일자리 모델은 더욱 다양화되고 참여는 확대될 것이다. 특히 보람일자리사업을 다각화해 후속 일자리로 연계되는 형태의 모델을 구상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의 플랫폼을 확장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 50+정책플랫폼 통한 건전한 신노년문화 확산

건전한 신노년문화 확대를 위해서는 1기 성과로 강조됐던 ‘당사자성’이 더 활발하게 발현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50+정책 사업이 서울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50+당사자 운동으로 활성화되고, 하나의 세대문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소개한 서울시 50+정책의 사업 구조는 이러한 ‘당사자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자본으로서의 신노년문화는 캠퍼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등의 ‘50+당사자 참여형 플랫폼’을 통해 시작됐지만 더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 앞서 50+정책을 시행한 미국·독일·싱가포르 등은 중장년 세대가 사회문제 해결 등에 적극 참여해 활발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중장년 정책 플랫폼¹이 활성화돼 있다. 이들은 공공·민간 주도 정책 플랫폼을 통해 중장년 정책 의제의 활성화 및 지역협력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하는데, 50+정책 2기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50+당사자의 정책제안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운영해 50+세대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50+열린회의 등의 서울시 중장년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사회공익활동을 하는 당사자 조직인 ‘서울50+모임’ 등을 설립해 선배시민으로서 건전한 노년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주체를 통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

정책연구센터에서는 2019년 연구 『장노년층 디지털 역량 실태와 정보화 교육과정 운영방향』을 통해 50+세대의 디지털 에이징² 교육체계 방향을 제안했다. 디지털 에이징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단의 노력 이외에도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협력구조를 통한 전방위적 디지털 에이징 방안을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코로나19는 캠퍼스의 교육과정 체계를 넘어서 50+정책사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요구하게 됐다.

50+세대의 미래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돼야 한다. 50+세대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다양화·체계화해야 하고 2021년 ‘디지털 세대 이음단’ 활동처럼 디지털 정보 격차 해결 주체로서 50+시니어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디지털 기술 분야의 50+세대 미래형 일자리 무대 확장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50플러스캠퍼스」 등을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50+세대의 디지털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디지털 생활에 대한 인식전환을 가져오는 체험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 마련과 동시에 전문적인 온라인 전담 조직이 선행돼야 한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 대응전략 차원에서 서울시는 50+정책사업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1 미국은퇴자협회(AARP, 약 4,000만 개인 기관), 독일 이니셔티브50+연방협회(BVI50plus, 약 3,400만 개인 기관), 싱가포르 인민협회(People's Association, 약 1,800지역단체) 등

2 정보통신기술(ICT)을 잘 활용하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

나가는 말

서두에서 제시한 ‘50+리포트 특별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다. 특별호 원고 중에 ‘대전환 시기의 중장년 정책의 의의와 방향(정철영 서울대 교수)’과 ‘내가 지켜본 서울시50플러스재단 5년의 변화와 당사로서의 제안(김수동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이라는 원고가 있었다. 서울시50+정책의 중장기 운영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와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50+당사자 두 분의 의견이 서울시50+정책방향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든든하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에 발표한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지자체 중심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라는 정책사업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만큼 정책사업의 중복적이고 과도한 부분이 협조체제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50+정책의 중장기 운영전략 중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50+세대를 주축으로 한 ‘세대 통합, 세대 융합’적 관점인데, 개인의 중장년기 전후 시기, 즉 청년기와 노년기도 함께 고려해 정책 방안이 구상되어야 한다(정철영, 2021)는 제안은 정책사업 안에서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정책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세대융합의 의제는 지속될 것인데, 세대갈등 해소와 세대통합의 차원에서 50+세대의 새로운 역할로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노년문화를 선도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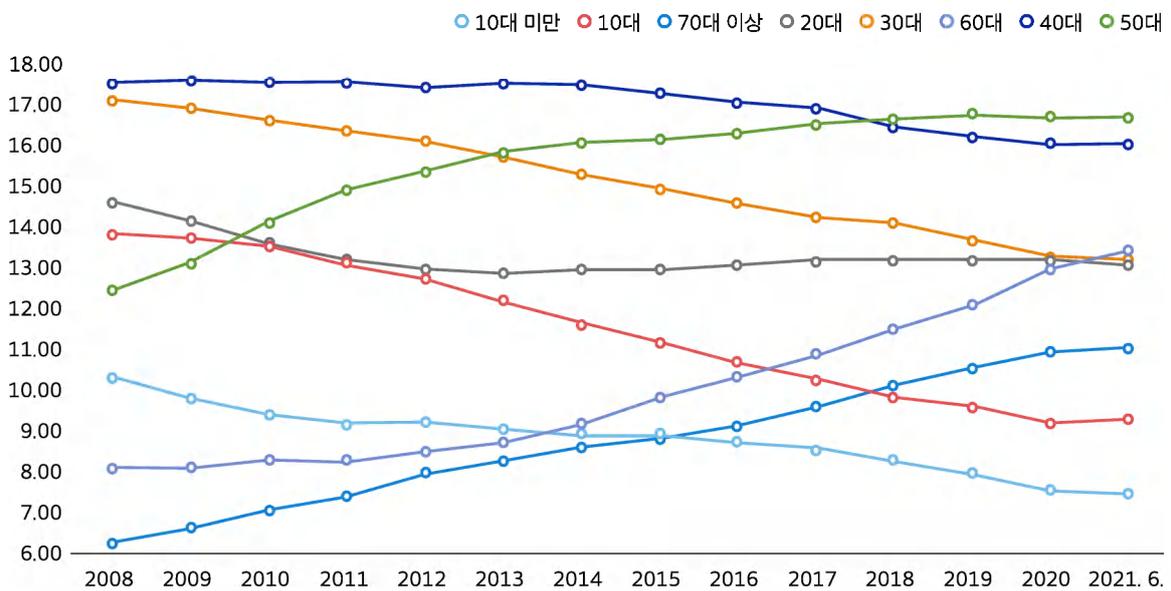
2021년에는 ‘서울시50플러스 중장년 지원제도 이용현황, 만족도 및 요구조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5년간 중장년 지원 정책에 대해 엄중한 평가를 받았다.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50+정책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년, 서울시50+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해 행정가, 협력기관, 실무자, 50+당사자 등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그 길을 닦아 서울시 중장년 지원제도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정책과 제도의 견고함, 핵심 정책의 고도화와 동시에 보편성의 확장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울시50+정책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참고문헌

- 김수동. (2021). 내가 지켜본 서울시50플러스재단 5년의 변화와 당사자로서의 제안. 50+리포트 2021 특별호 v.24.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 정철영. (2021). 대전환 시기의 중장년 정책의 의의와 방향. 50+리포트 2021 특별호 v.24.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9). 서울시50플러스지원정책: 50+의 가능성을 열다.
-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9). 장노년층 디지털 역량 실태와 정보화 교육과정 운영방향.
-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 50+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단 중장기 비전과 실행로드맵. 50+정책미래비전TF.
-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 서울시50플러스재단 현황 및 성과분석.
- 성혜영·김아람. (2020). 중년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통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방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주용국·신민주. (2020). 중장년층의 활동적 노화 정책 및 사업 연구: 서울특별시50플러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0(2), 269-289.

퇴직을 앞둔 재직자를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실태와 정책 제안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통계¹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50대(16.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뒤에는 50대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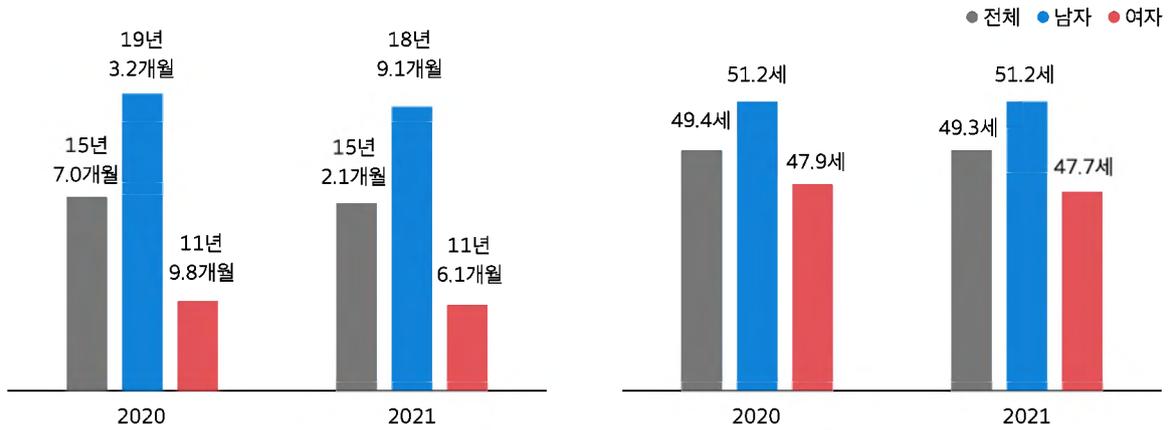


2021년 6월 말 연령대별 인구비중 추이(행정안전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중장년의 경제적 삶은 안정적이지 않다. 통계청 자료²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2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4.9개월 감소했고,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도 49.3세로 전년 동월 대비 0.1세 감소했다.

대한민국의 50대는 생애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다. 학비·결혼 등 자녀 부양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이며, 연로하신 부모님의 봉양에 대한 부담도 크다. 이렇다 보니 중장년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퇴직하자마자 바로 재취업 일자리를 뛰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의 재취업 일자리는 구하기도 어렵고, 구했다고 하더라도 오래 버티기도 어렵다는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게 된다.

1 2021년 6월 말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통계 분석(행정안전부, '21.7.7.)
 2 2021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통계청, '21.7.27.)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55~64세) 근속기간 및 그만둔 연령

* 자료: 2021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통계청, '21. 7. 27.)

재취업 일자리 현실을 보면 상용직 일자리 비중은 낮고 일용직이나 자영자 비중은 높다. 종사하는 업·직종도 제조(14.8%)·도소매(11.8%)·단순노무(18.6%)·장치기계(13.6%)·서비스직(13.3%)직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직종은 산업구조가 자동화·디지털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라질 위험이 높은 일자리들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 감소 정도가 큰 5대 직종군

직업명	일자리 감소 사유	관련 기술
상점판매원	무인점포·무인계산대 증가, 온라인 매장 구매·배송 확산	핀테크·AI
콜센터요원	정형화된 고객문의에 대해 인공지능 챗봇으로 응대	AI·빅데이터
금융사무원	오프라인 은행점포 폐쇄, 모바일 금융서비스 확산	핀테크·빅데이터
검침(수금)원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및 원격화 통제 관리	IOT·빅데이터
단순제조종사원	제품 조립, 불량품 검사 등의 업무를 로봇과 인공지능 등으로 대체	스마트공장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미래직업연구팀(2021)

그렇다면 은퇴를 앞둔 50대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지금까지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점검하고, 내가 속한 또는 관심 있는 산업과 기술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경력을 설계하는 등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없는 재취업과 창업은 빠른 실패로 연결되고, 뚜렷한 경력목표 없이 직업교육기관들의 홍보전단지에 현혹돼 받은 교육이나 직업훈련은 오히려 아까운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기존경력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지게 돼 다음 직업으로의 연결고리마저 끊겨 버리는 경우가 많다. 결국 단기적이고 단순한 직업밖에 구할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재직 중에도 경력설계를 통해 인생 후반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0대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부 노동시장의 변화나 경력과 적성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력설계를 해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 등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미래 경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H	3H	3H	3H
50대 경력 확장	Module 1 나의 생애 조망하기 과정 개요 : 생애경력설계의 의미 중장년의 특성 이해하기 내 삶의 가치 탐색하기	Module 2 직업역량 도출하기 직업세계변화 따라잡기 직업역량검사 및 해석 강점 및 약점 보완하기	Module 3 경력대안 개발하기 경력설계의 4가지 대안 대안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네트워킹	Module 4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경력설계 사례 연구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Module 1 송고르기 과정 개요 : 생애경력설계의 의미 100세 시대 준비하기 100세 시대 4대 문제 공평의 힘(자존감) 진단 및 자존감 키우기	Module 2 발견하기 직업가치관의 의미와 탐색 나만의 직업가치관 작성하기 가치특성에 따른 생애경력설계 가이드	Module 3 균형잡기 삶의 균형 요소 (일, 학습, 재무, 건강 등) 성취동기를 높이는 스토리텔링 계획서 새로운 도전을 위한 Do & Don't	Module 4 뛰어들기 실행계획서 작성 10년 후 나의 모습 그리기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교육 모듈

* 자료: 노사발전재단 연령대별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17)

생애경력설계를 통해 방향 설정이 됐다면, 전직 준비는 최소 퇴직 1년 전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선 필요한 업계 동향과 기업 현황 등을 업데이트하면서 경력목표를 수시로 점검한다. 해당 분야 네트워크는 물론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방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고 구직 서류와 면접을 준비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디지털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나이와 경험의 장점을 강조하기보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내보여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장년들은 퇴직 직전까지 전직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준비 없이 퇴직을 맞는 것이 현실이다. 재직 중에는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전직을 준비할 심리적·시간적 여유가 없기도 하고, 기업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정부에서 실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운영 비율은 17%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2019년 5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50세 이상의 정년 등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사업장의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4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 담당자 연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사업

기업컨설팅		기업담당자 연수	
대상	450개사 (1,000인 이상 의무대상 사업장 400개사 및 900~999인 사업장 50개사)	대상	900명 (1,000인 이상 의무대상 사업장 및 900~999인 사업장 내 담당자) ·기업컨설팅 참여 사업장 외 1,000인 이상 의무 사업장 담당자 우선 선발 예정
절차	시청접수 → 심사선정 → 협약체결 → 컨설팅 제공 → 파일럿 프로그램 제공 → 사후관리	내용	입문(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이해 등) 및 고급(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실무 등)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국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무료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컨설턴트 배정을 통해 전직 준비단계부터 재취업·창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경력목표설정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퇴직예정자 프로그램

변화관리	· 동기부여 · 관계·커뮤니케이션 · 회복탄력성 · 시간관리	자기탐색	· MBTI 활용 · 교류분석 · 중장년의 특성 · STRONG 활용 · 역량분석 · 직업가치관
목표설정	· 경력목표 설정 · 버킷리스트 활용 · 직업카드 활용	구직기술	· 구직전략 · 면접전략·실습 · 구직정보 탐색 · 취업사례 분석 · 이력서 작성법·실습 · 면접 이미지메이킹 · 네트워킹 활용
직업세계	· 고용동향 · 다양한 일자리 · 창업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 귀농·귀촌 · 창직	플러스	· 고용복지플러스 · 스트레스 관리 · 재무관리 · 건강관리
		직업체험	· 현장실습 ex)목수, 드론조종사, 조경관리사, 도시농부 등

* 프로그램은 7개 테마 31개 모듈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과 협의해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60세 정년제도가 안착되고 정부의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지원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중장년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경제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오프라인·대면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열정과 노력을 바쳐 일한 일터에서 배려와 존중을 받으며 다음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서비스 실시율은 제도 도입 이전보다 15%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의 제도라는 일부의 비판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서비스 실시율을 높이고 제도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 기업을 현재 1,000인 이상에서 500인, 300인, 100인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신 1,000인 이상 기업은 기업 자부담을 통해 의무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³ 한국은행의 「비대면 소비행태 확산과 서비스업계 대응전략(2020)」 발표에 따르면 서비스업 205개사 가운데 고용이 10~30% 감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6%, 30% 이상 감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2%였으며, 시기별로는 1년 이내 감소 27.2%, 1~2년 이내 25.4%로 조사됨.

서는 공공 부문을 통해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여 서비스 참여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지원 대상 연령도 현행 50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45세, 40세로 낮추어 퇴직예정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라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생애경력검진과 능력개발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재직자들의 전직지원과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이 하나의 사내 복지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산업구조 변화와 코로나19로 촉발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더 이상 이직과 전직이라는 사건이 어느 한 개인의 인생에서 불행하게 맞는 특별한 위기라고 볼 수 없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직지원서비스는 일부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에 대한 제한적 서비스가 아니라 중장년이라는 생애경력전환기 진입 시 누구나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평생 경력개발서비스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참고문헌

- 2021년 6월 말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통계 분석(행정안전부, '21.7.7.)
-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통계청, '21.7.27.)

서울시 50+보람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¹

보람일자리사업과 정책효과

보람일자리사업이란 서울시가 시행하는 50+정책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 대에게 사회공헌일 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와 활력 있고 안정된 인생후반기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이다.

정책결정자는 새로운 정책이나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6년에 시행되어 6년차를 맞이하는 보람일자리사업은 사업이 창출한 사회·경제적 효과의 존재여부 및 크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정책효과(policy effect)라고 한다면, 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의미한다. 보람일자리사업 정책효과 연구의 과제는 정책이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시 50+세대들의 행태에 변화를 가져왔는가, 만일 가져왔다면, 그 효과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이제까지의 일자리사업 평가연구²와는 달리 보람일자리사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적(value-added)'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사업의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¹ 「서울시 50+보람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 사회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² 정책학 분야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대상으로 그 경제적 효과성을 소득, 노동공급, 빈곤감소(빈곤율, 빈곤갭), 소득재분배 등의 관점에서 보고 있음.

정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2가지 전략

1. 어떠한 성과변수(outcome)를 측정할 것인가?

구분	측정	추론 내용
경제적 효과	보건의료비 지출	· 보람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의료비 절감효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질병의 경미함 혹은 발병률의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증진의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생활비 지출	· 보람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가구의 생활비 지출이 증가하였는가를 측정 · 경제구성원의 후생(welfare)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변수는 소득보단 소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관적 경제상태	· 보람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50+세대가 느끼는 주관적인 계층의식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정
사회적 효과	사회활동 참여	· 보람일자리사업이 제공하는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는 참여자들의 사회관계 형성을 더욱 활성화하고 사회 참여의 동기를 고취하여 노동시장 참여 이외의 사회적 참여를 증대시키는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심리적 건강	· 사회참여는 50+세대들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 또는 더 넓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런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50+세대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가족관계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가 다시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안정과 지지를 얻고, 가족 관련 삶의 질이 증진된다는 가정
	행복감	·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고령자들은 사회와의 상호작용 관계를 감소시키지 않음으로써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는 활동이론에 근거

2.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가?

보람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보람일자리사업의 참여자들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성과와 만약 동일한 참여자가 보람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성과와의 차이’라고 정의하였다.

정부 정책의 성과 판단 또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의 성과와 동일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던 경우 얻어질 성과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 즉 실험집단(treatment group)과 비교집단(control group)의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2020년 보람일자리사업에 참여한 5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람일자리사업 비참여집단³을 구성하기 위해 타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결합(merge)하였다.

보람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3 보람일자리사업 비참여집단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생산한 ‘서울복지실태조사(2020)’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음.

보람일자리사업은 보건의료비 지출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보건의료비 지출이 더 적었음을 의미하며, 특히 평소 만성질환이 없었던 사업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연평균 15만 6,000원의 보건의료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업에 참여한 50+세대들의 생활패턴이 신체적 건강을 제고시키고 질병률을 낮춰 의료기관 이용 정도를 감소시켰음을 의미한다.

보람일자리사업이 50+세대 가구의 생활비 지출 증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생활비 지출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생활비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 참여자도 경제적 후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앞서 분석한 보건의료비 지출 절감효과로 총 생활비가 줄어서 파생된 결과로 판단된다.

보람일자리사업으로 인한 주관적인 경제상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거나, 평소 사회활동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50+세대도 보람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주관적 경제상태가 상향하였다고 인식해 보람일자리사업이 주는 주관적인 경제적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보람일자리사업 참여는 사업 참여 이외에 또 다른 강한 사회참여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람일자리사업 참여는 단순히 가구소득을 높이는 경제적 결과를 넘어 50+세대들이 해당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보람일자리사업이 제공하는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는 참여자들의 사회관계 형성을 더욱 활성화하고 사회참여의 동기를 고취하여 노동시장 참여 이외의 사회적 참여를 증대시키는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람일자리사업의 참여가 우울감 감소, 주관적 건강상태 증진이라는 긍정적 심리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지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보람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로 측정되었던 보건의료비 감소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 신체적 건강 증진효과까지 확인된 반면 심리적·정신적 건강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람일자리사업은 강한 가족관계 증진이라는 사회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50+세대의 생활 패턴이 적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가족관계는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보람일자리사업 참여횟수가 증가할수록 가족관계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보람일자리사업은 강한 행복감 상승의 사회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0+세대에게 보람 있는 일은 진정한 자아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이며, 여러 가지 상실을 통해 겪게 되는 은퇴 후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보람일자리사업의 장기적 산출결과(삶의 질 및 생활 만족도 향상, 인생재설계)로서 행복감 효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고에서 발견한 보건의료비 감소, 주관적 경제상태 상승, 사회참여 증대, 가족관계와 행복감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보람일자리사업이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사업으로서 지니는 가치뿐만 아니라 일

자리에 종사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영위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50+세대의 보람, 성취감, 행복감 증진

50+보람일자리사업 성과의 의미는 사업 명칭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보람’ ‘일자리’ ‘50+당사자’로 축약될 수 있다. ‘보람’은 의미이기 때문에 사업 참여자의 성취와 느낌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일자리’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 정도로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50+당사자’의 경우, 자신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었는가를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50+세대의 역량을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었는지 인터뷰 사례를 통해 판단할 수 있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정보를 알려드리자 ‘나에게 너무 필요한 정보’라고 좋아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시겠다고 노트에 하나씩 적으실 때, 제가 느낀 것은 보람과는 또 다른 감동이랄까요. 삶을 다시 배우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약 25년간 IT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교안을 만들거나 효율적인 수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다룰 때, 복지관마다 기기 환경이 달라 교육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적당한 기기를 사용해 원활하게 수업을 하는 과정에 지난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 전00 참여자(50+스마트기기지원단)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행복감 증진효과도 매우 유의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사업의 참여 동기 조사결과에서도 ‘삶의 보람 및 성취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보람일자리사업은 50+세대의 보람, 성취감,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통합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를 통해 보람일자리사업이 제공하는 사회참여의 기회는 참여자들의 사회적·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더욱 활성화하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를 다시 일자리에 참여시켜 가족의 안정과 지지를 얻게 함으로써 가족관계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보람일자리사업의 세대통합 유형 사업을 통해 위로는 노인세대와 아래로는 청년세대가 함께하고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뿐만 아니라 보람일자리사업 참여 동기에 따른 정책효과분석을 별도로 실시하였을 때, ‘세대통합을 실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는 50+세대들의 사회적 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진출하는 디딤돌 역할 수행

보람일자리사업은 단순히 소득보충을 위한 경제적 결과를 넘어 50+세대들이 새 커리어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디딤돌이 되어 다양한 사회활동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활동 참여 증진효과를 통해 증명되었다.

50+세대 사업 참여자들은 '적극적 사회참여 및 인생재설계'를 높은(5점 만점에 평균 4.16점) 참여 동기로 선택할 만큼 퇴직 후 새로운 커리어 개척을 중요시하는데, 보람일자리사업은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통로임이 분명해 보인다.

보람일자리사업이 갖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 발견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를 통해 보여준 다양한 사회활동(지역사회 회의, 지역봉사활동, 마을공동체 사업, 단체활동) 참여 증진효과로 보람일자리사업에 50+세대의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기능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50+세대의 사회자본과도 연결되는데, 보람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지속성을 가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인간 사이의 신뢰관계와 협력 속에 공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형성된다. 즉 지역사회에서 50+세대가 보람일자리에 참여하고, 이 경험이 사회 속에서 환원되고 또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본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공헌의 개념과 일치하며, 보람일자리사업이 사회공헌 일자리라는 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이다.

보람일자리사업의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근로소득을 비교하여 봤을 때, 참여집단의 중위소득이 높게 나타났는데(보람일자리사업 참여집단: 연 2,800만 원, 비참여집단: 연 2,450만 원), 이를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자생적으로 소득창출의 기회를 얻기 힘든 50+세대가 보람일자리사업으로 인해 소득원천의 기회를 얻음으로써 근로소득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이 높다는 것은 공적·사적 이전소득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⁴

보람일자리사업은 50+세대에게 사회공헌과 새 커리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서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다.

현실적으로 보람일자리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득보충 기능을 강화하

4 실제로 생애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들의 공적·사적이전소득 평균값을 분석해보면(서울복지실태조사, 2020),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집단(공적이전소득: 연 152만원, 사적이전소득: 연 11만원)보다 비참여집단(공적이전소득: 연 228만원, 사적이전소득: 연 67만원)이 높게 나타남.

기 위해 50+세대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수준을 상향조정한다면 전체적인 참여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소득수준에도 보람일자리사업에 참여한 50+세대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제한된 숫자의 빈곤한 50+세대 생계해결을 위해 사업 참여자 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참여자 수를 확대하는 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생계를 위한 소득보충 기능은 현금 이전소득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수행하고, 보람일자리사업은 소정의 활동비 지급과 함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발생하는 50+세대의 사회활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시 중장년과 스마트복지¹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마트복지의 대두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장기화 등 급격한 사회구조변화를 겪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스마트복지’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스마트복지란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통합적인 맞춤형 복지²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처음 등장한 스마트복지에 대한 담론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진적으로 복지 분야에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및 스마트 기기 활용도 증가,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점진적 적용이 아닌 급격하고 필수적인 변화 흐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추진되는 스마트복지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하나는 스마트도시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공공서비스의 성격,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복지가 갖는 한계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보완·지원하는 성격이다.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서울시는 2006년 U-Seoul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선도적으로 준비해 왔고, 6개(교통, 안전, 환경, 복지, 경제, 행정)의 대분야 중 하나로 스마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도시계획의 일부로서 스마트복지는 ‘정보통신기술’과 ‘복지서비스’의 연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도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도시형 플랫폼’이란 개념으로 정착되면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일부는 스마트도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종의 산업 또는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인구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주요 선진국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며 대부분의 사람은 문화·인종·지역에 관계없이 익숙한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성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중고령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지서비스들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¹ 이 글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서울시 스마트복지 실현을 위한 중장년 지원방안 연구(2021)>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² 스마트복지의 상세한 개념 정의 과정에 대해서는 위 연구를 참조.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복지의 혜택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자체에 중요한 복지 과제가 되었다. 서울시는 '2020 서울 스마트복지 온라인 콘퍼런스'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으며, 특히 중고령층에서 두드러지는 디지털 격차 문제의 해소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 중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실태

서울시 스마트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디지털에 취약한 집단인 중고령층의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정보화 실태와 관련된 최신 통계 자료인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2021)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³ 일반 국민(전국 평균)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민을 40대 이하, 50+세대(50~64세), 노년 세대(65세 이상)로 구분하고 저소득층과 함께 비교하였다.

서울시민 디지털정보화 수준 종합

서울시민					저소득층 서울시민				
구분		접근	역량	활용	종합	접근	역량	활용	종합
40대 이하	평균	95.5	120.1	151.2	105.1				
50+세대(50~64세)	평균	98.0	99.0	126.7	91.9	82.9	92.3	139.4	89.7
노년 세대(65세 이상)	평균	93.2	63.0	88.7	68.1	69.6	65.0	88.0	63.0
총계	평균	95.8	105.8	135.2	96.0	78.5	83.2	122.3	80.8
국민(전국 평균)	평균	100.0	100.0	100.0	100.0				

자료: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2021) 분석
 ※65세 이상 세대를 50+세대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노년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디지털정보화종합수준= 접근(20)+역량(40)+활용(40) / 가중치를 두어 접근과 역량, 활용의 합으로 표현.

서울시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40대 이하에서 높은 편이나 노년 세대로 가면서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수준의 차이를 제외하고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의 PC·스마트폰 등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둘째, 디지털정보화 역량과 활용 측면에서는 소득보다 연령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50+세대 저소득층의 디지털 활용이 다른 비교군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즉 저소득층이라도 스마트폰을 일단 소유할 수 있다면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당사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저소득층 전반, 특히 저소득 노년층의 접근이 확연히 떨어지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스마트폰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 사용료에 대한 부담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꺼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통신비가 스마트복지를 가로막는 큰 장벽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3 서울시민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대한 상세 분석은 위 연구를 참조.

또한 모바일 이용 능력과 관련된 교육은 65세 또는 70세 이상 등의 노년 세대에게는 필요하나, 50+세대에게 단순한 모바일 이용 능력 교육은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중장년 세대가 디지털 격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도 다른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다⁴. 따라서 스마트복지를 보다 많은 사람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방향 지원이 아니라, 중고령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스스로의 수요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50+세대의 디지털 활용 수준이 특히 높다는 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의 인터넷 활용률은 높지만 사회적 관계 유지나 생활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기보다 댓글·설문조사·민원·사회참여 등 단순 활용에 치우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하며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능력과 태도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역량,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 등 다양한 표현을 빌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유네스코(UNESCO), 영국 건강보험공단(NH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 국내외 문헌에서 활용하는 용어는 각기 다르나 공통적인 부분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고 타인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급속도로 전환된 디지털 세상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역량은, 본격적으로 디지털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대다수의 중고령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시민 역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시민 역량 수준

PC 및 모바일기기 이용시민 역량	40대 이하	50+세대		노년 세대		전국평균
		서울시민	저소득층	서울시민	저소득층	
타인과 교류, 협력	111.6	97.1	93.1	67.4	68.3	100.0
다양한 활동에 참여	118.5	100.6	102.0	69.2	73.7	100.0
인터넷 위협요인 방어	116.1	94.6	92.1	67.5	68.6	100.0
타인 이해, 인정, 수용	113.5	98.1	83.8	66.7	64.0	100.0

자료: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2021) 분석

서울시 50+세대 저소득층과 노년 세대 전반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디지털 시민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타인과 연결하고 소통하고, 타인과 교류하고 협력하거나 개인정보 노출, 타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인터넷 이용의 위협요인으로부터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능력, 책임 있는 인터넷 이용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수용하는 역량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서울시 50+ 중장년 지원 제도 이용 현황, 만족도 및 요구 조사(2021)에서 중장년이 서울시에 바라는 정책 요구 중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실습·체험공간 등의 시설 구축 운영, 중장년 대상의 디지털 교육 활성화 등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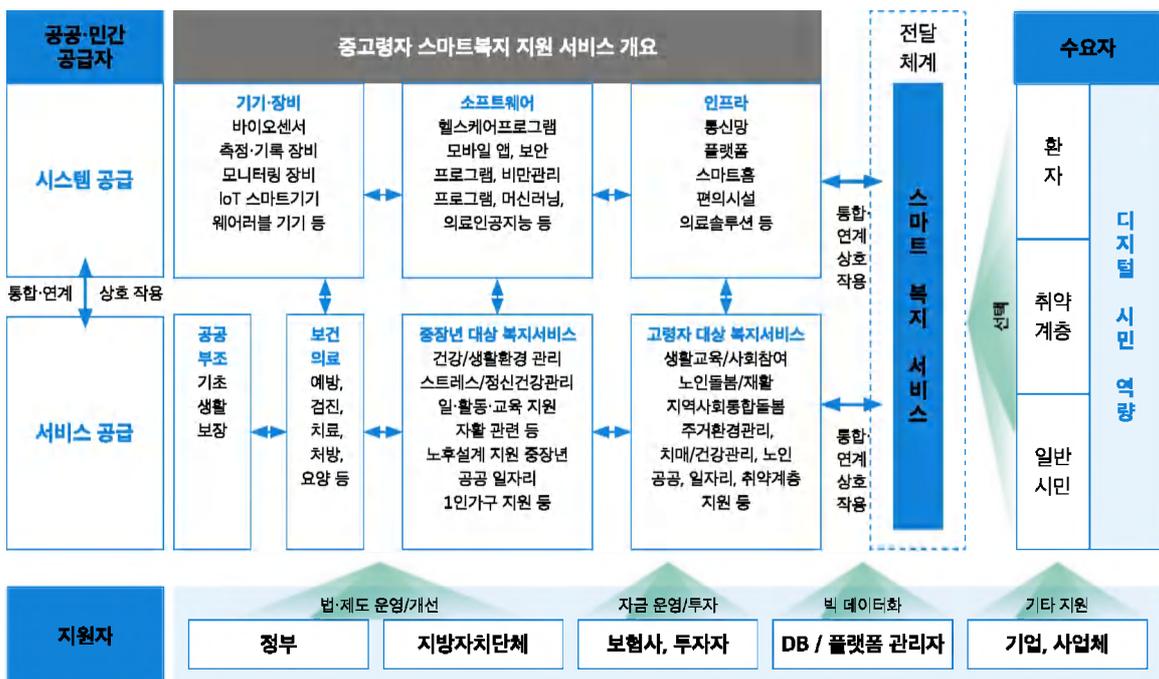
서울시 중고령층 스마트복지 지원 방안

스마트복지의 수요자·공급자·지원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연구지는 중고령자 스마트복지 지원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전·목표·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서울시민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누리는 서울형 스마트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민 역량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복지 서비스를 개선 및 다양화하되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패키지 형태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고령자들이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제도와 인프라의 보완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울시 중고령자 스마트복지 지원 방안(안)

비전	서울시민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누리는 서울형 스마트복지 실현		
목표	함께 누리는 쉽고 편안한 스마트복지	편리하고 즐거운 스마트복지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스마트복지
주요 과제	디지털 시민역량 향상 지원	스마트복지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스마트복지 인프라 및 시스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령자 디지털 시민 역량 향상 마스터플랜 수립 디지털 전환 교육 체계화 디지털 안전 및 윤리교육 강화 찾아가는 디지털 시민 역량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정보화 교육 관련 공공일자리 운영 개선 중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 발굴(문화예술, 체험활동 등) 서울시 중고령 시민을 위한 서울형 스마트복지 패키지 (스마트폰+wifi+통신비+교육)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기기 체험 공간 마련 스마트폰 및 통신비 지원 확대 보건/의료/복지서비스 등과 연계 SI 기기 보급 서울시 스마트복지 위원회 및 전담 조직 개편/운영 디지털 사기 피해 예방 제도 보완

서울시 중고령자 스마트복지 지원서비스 개요(안)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포스트 코로나 50+세대 미래 삶에 대한 전망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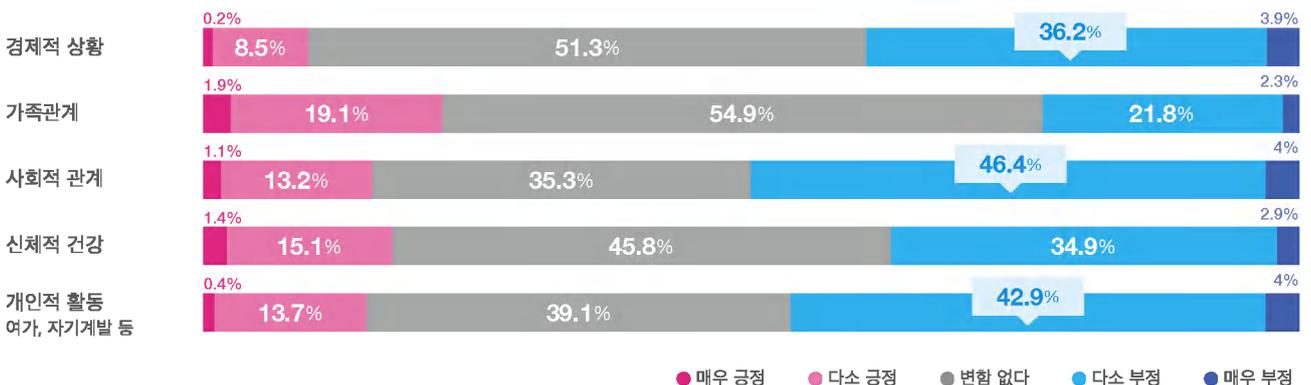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는 서울시 50+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연구를 통해 50+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0+세대의 미래 삶에 대한 전망과 인식을 분석해 보았다.



01. 코로나19 이후 분야별 삶의 질 변화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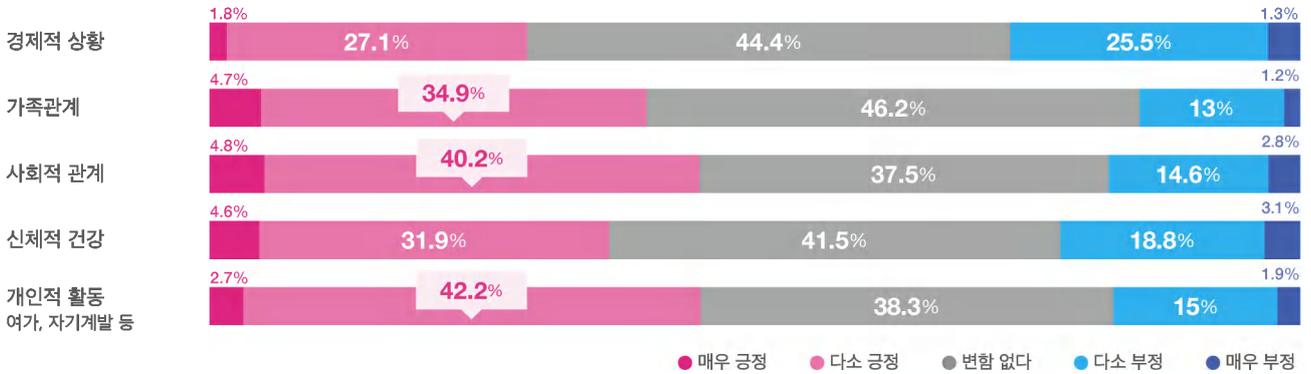
1. 코로나19 이후 분야별 삶의 질 변화

- 코로나19 이후 분야별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변화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을 삶의 질적 요인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50.4%)', '개인적 활동'(46.9%)', '경제적 상황(40.1%)등의 순임
- 응답자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관계, 여성은 가족관계와 신체적 건강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더 크게 나타남



② 미래(5~10년 후) 분야별 삶의 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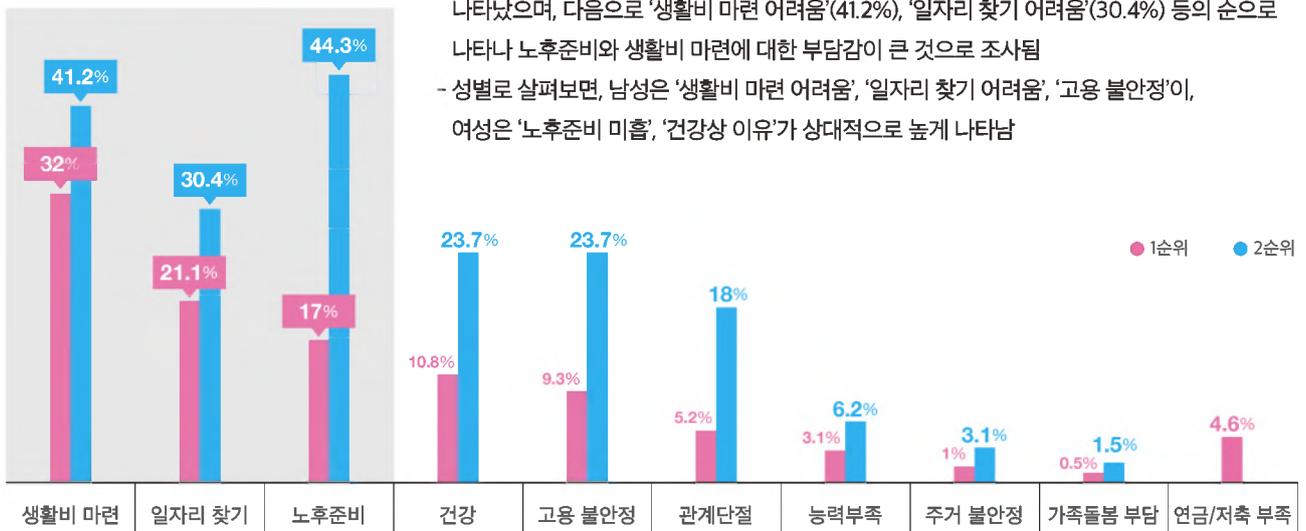
- 미래(5~10년 후) 분야별 삶의 질 전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더 크게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45.1%), '개인적 활동'(44.8%), '가족관계'(39.6%)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응답자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긍정적 의견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보임
-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의 부정적 변화와 미래의 긍정적 전망에 대한 응답률이 모두 높은 반면, 경제적 상황은 현재의 부정적 변화에 비해 긍정적 전망이 낮게 나타남



③ 미래 삶의 질 부정적 전망 이유

- 분야별 삶의 질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자(응답값 합산 기준 10점 이하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는 '생활비 마련 어려움'(32.0%), '일자리 찾기 어려움'(21.1%), '노후준비 미흡'(17.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복수응답 기준에서는 1순위 응답 기준과 달리 '노후준비 미흡'(44.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활비 마련 어려움'(41.2%), '일자리 찾기 어려움'(30.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노후준비와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조사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생활비 마련 어려움', '일자리 찾기 어려움', '고용 불안정', 여성은 '노후준비 미흡', '건강상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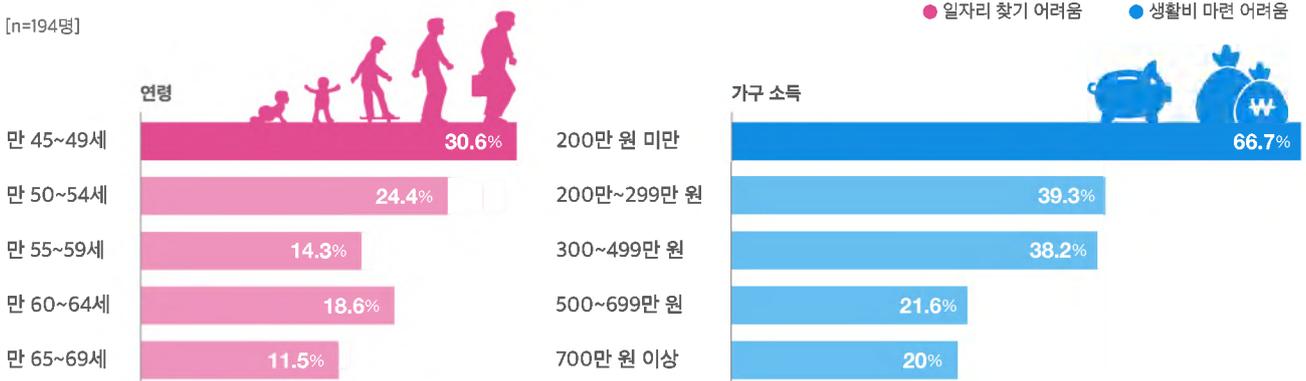
[n=194명]



④ 연령별, 가구 소득별 미래 삶의 질 부정적 전망 이유(1순위 기준)

- 응답자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일자리 찾기 어려움', 응답자의 가구 소득이 낮아질수록 '생활비 마련 어려움'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n=19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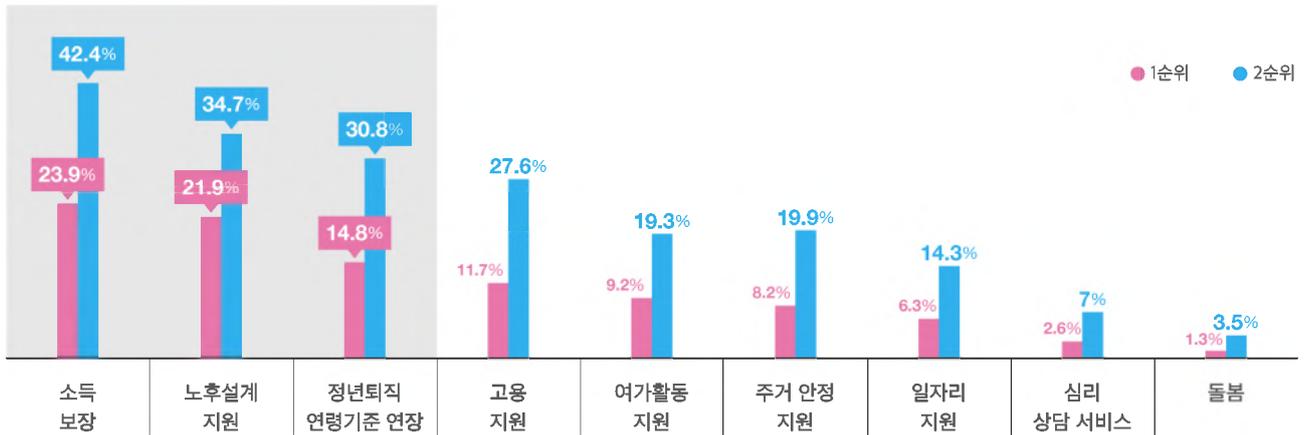


02. 중장년층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

① 중장년층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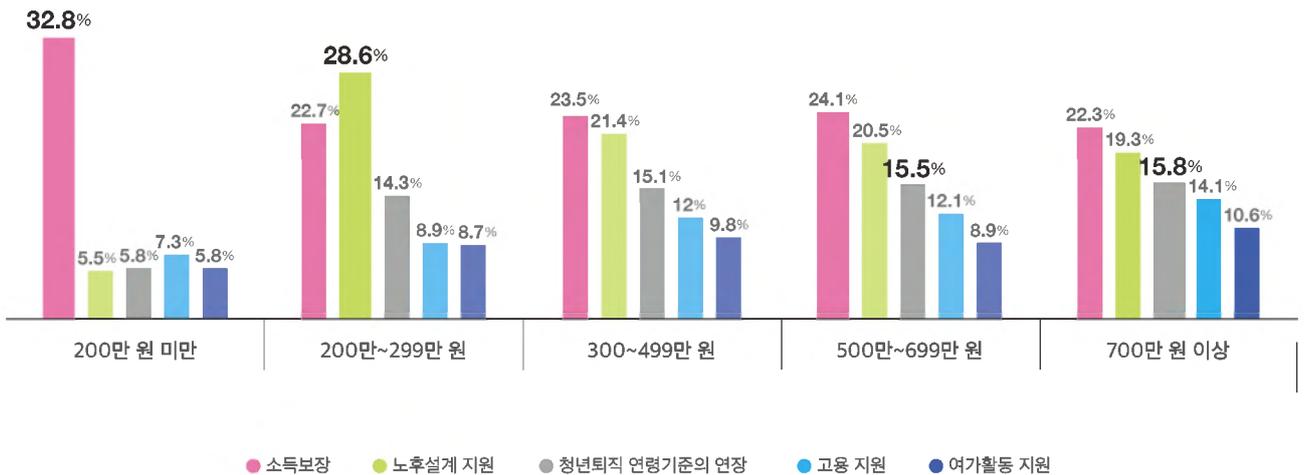
- 중장년층(만 40~64세)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소득 보장'(23.9%)과 '노후설계 지원'(21.9%)을 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정년퇴직 연령기준 연장'(14.8%)과 '고용 지원 제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n=194명]



② 가구 소득별 중장년층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 기준)

- 응답자의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년퇴직 연령기준 연장'과 '고용 지원 제도'를 꼽음
- 반면에 응답자의 가구 소득이 낮아질수록 '소득 보장'과 '노후설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Das Leben Leben: Live your Life" 당신의 삶을 살라 미국의 원격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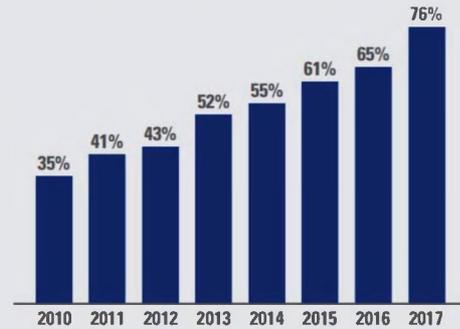
원격의료는 미국 전역의 지역 사회에서 의료 서비스를 변화시키고 있다.

원격의료(Telehealth)는 화상회의, 원격 모니터링, 전자상담 및 무선통신을 통해 환자가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진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에 앞으로 의료 환경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는 의료 가치와 경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가상 케어 기술은 환자의 시간 절약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의 이송이나 응급실 및 긴급치료센터 방문을 줄이며,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응급실 치료부터 만성 진료 관리를 위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과 진료에 대한 전문가의 접근에 이르기까지, 원격의료는 환자 만족도와 결과를 향상시키면서 일상적·전문적 치료에 대한 환자 접근을 확대하는 등 건강 관리의 제공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35개 주와 워싱턴D.C.에는 일반적으로 대면 의료서비스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회사가 지불하는 수준으로 원격의료서비스 비용 또한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패리티(Parity)'법이 있다. 또한 미국 병원의 76%는 비디오와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환자와 연결하고 있다. 거의 모든 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보장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민간 보험사 역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증을 수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의료의 확산이 가속화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Use of telehealth in hospitals has grown rapidly.
Percent of hospitals fully or partially implementing computerized telehealth system, 2010-2017



Source: 2011 to 2018 AHA Annual Survey IT Supplement

미국 원격의료 성장 현황

출처: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원격의료 서비스 종류

원격의료는 치료제의 변화 혹은 만성질환 상태와 같은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일반적인 원격의료 치료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혈액 검사 등의 랩 테스트 또는 엑스레이 결과	5	처방전 관리
2	치료 및 온라인 상담	6	감기·기침이나 복통과 같은 긴급 치료 문제
3	편두통 또는 요로감염 같은 반복적 신체 증상	7	수술 후 후속 조치
4	피부 상태 점검		

또한 건강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

1	재활운동을 하거나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알림
2	다이어트, 이동성 또는 스트레스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
3	집에서 치료를 계속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 안내
4	치료 계획에 대한 안내와 격려

코로나19 팬데믹과 원격의료

원격의료 기술과 그 사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간단한 전화 통신 수준을 넘는 광범위한 원격의료 서비스는 다소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일어난 최근의 정책 변화는 원격의료 접근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급성, 만성, 1차 및 전문 치료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원격의료의 사용을 촉진하였다.

특히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전염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확실히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격 의료를 통한 치료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염병의 이환율과 사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커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그것이 가지는 다양한 이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전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대면 치료를 꺼리거나, 대면 치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특히 요구된다. 원격의료는 가지는 이러한 여러 장점은 팬데믹 기간 중 원격의료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1분기 원격의료 이용 건수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 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경과 비교해 2020년에는 의료 산업 및 기관의 원격의료 및 디지털 건강관리(Digital Healthcare)에 대한 투자가 3배 더 급증하였다.

한편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소비자들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원격医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원격医료를 미래의 치료 요구 사항에 대한 중요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정신의학(Psychiatry) 분야의 원격医료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의료 제공자 측에서는 의사의 58%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원격医료를 더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의사의 84%가 가상 방문을 제공하고 57%가 원격医료를 계속 제공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고된다.

원격의료의 한계점

원격의료는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그것이 가지는 다음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1	주(State)마다 다를 수 있는 면허 및 기타 규제 문제
2	대면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서 원격의료 적용의 한계성
3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4	원격의료 방문 또는 연결 문제에 필요한 기술장치(예: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 대한 제한된 접근의 이슈
5	의료진과 환자의 원격의료에 대한 심리적 장벽

노인을 위한 원격의료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는 환자가 PC 혹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어야 제공이 가능하다. 의료 서비스 소비자의 시청각 장비에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과 기기 작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원격의료의 기본 전제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노인은 신체나 인지적 어려움 그리고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의과대학의 노년의학전문의로인 Lam교수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사 방문 치료의 약 25%는 노인들이며, 이들 대부분은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약 1,300

만 명의 노인이 여러 이유로 원격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들의 대다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화상 전화 원격의료는 기술에 경험이 없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약 630만 명의 노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전화 방문은 시각적 평가가 필요한 치료에 최적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원격의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추가적 정책 마련을 위해 학계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노인 및 의료 단체들의 지지 활동도 벌어지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변화의 일환으로 2020년 초부터 메디케어(Medicare: 65세 이상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연방 건강보험)와 메디케이드는 대면 치료 및 화상 원격의료 치료와 같은 비율로 비화상 전화 원격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맺음말

원격의료는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직원과 환자를 위한 질병 노출을 줄이며, 개인 보호장비의 부족한 공급을 보전하고, 시설에 대한 환자 수요를 줄이며, 의료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의료 서비스 경험자가 증가함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심리적 거부감이 급격히 완화되면서 원격의료 서비스는 향후 더욱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 대상의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인이 사용하기 쉽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는 디지털 장치,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장치 사용 교육 서비스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활성화된다면 앞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방문을 외면해 왔던 노인들이 보다 쉽고 싼 비용으로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노인층이 원격의료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한국의 현시점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인구를 포함한 인구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원격의료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Fact Sheet: Telehealth. <https://www.aha.org/factsheet/telehealth>
- Koonin, L. M. et al. (2020). Trends in the Use of Telehealth During the Emergence of the COVID-19 Pandemic — United States, January–March 2020.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69(43), 1595–1599. <https://www.cdc.gov/mmwr/volumes/69/wr/mm6943a3.htm>
- McKinsey & Company. (2021). Telehealth: A quarter-trillion-dollar post-COVID19 reality?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healthcare-systems-and-services/our-insights/telehealth-a-quarter-trillion-dollar-post-covid-19-reality>
- Health Resource & Service Administration. (n.d.) Telehealth: Health care from the safety of our homes. TELEHEALTH.HHS.GOV
-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CDC). (2020). Level of comfort with technology for HCP and patient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telehealth.html>
- Lam, K., Lu, A. D., Shi, Y., & Covinsky, K. E. (2020). Assessing telemedicine unreadiness among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AMA internal medicine, 180(10), 1389–1391.

발간번호 서울시50플러스 2021-025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울시 복지기획관 정상택
편집인 황윤주
책임자 권현진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0(代)

※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